MAY 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120－1121 1983년 4월29일(금) & 3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April 29 & 30,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코리아타운 成長하려면 韓國的 文化특징갖춰라

높은 범죄발생율·환경미화 결핍이 큰 취약점

(LA지사)LA의 「코리아타운」이 지난 수년간 이룩해온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 단순한 상가와 주거지역의 집합지 성격을 탈피, 「문화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고 남가주대학 부설도시계획연구소(소장·조셉로간박사)가 최근 발표한 「코리아타운 경제부흥에 관한 연구조사서」에서 지적했다.

생활영위위한 상점·거주지역탈피 "코리언빌리지"개념 실체화시켜야

또한 현 한인타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높은 범죄발생률과 환경미화의 결핍이라고 밝힌 이 조사서는 컴뮤니티 전체가 협조 장·단기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지 않는한 경제발전의 정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C부설연구소가 LA도시계획과의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한 전문 2백30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한인타운이 안고있는 제반문제점과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 수록하고 재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형성된 「차이나타운」과 「리틀도쿄」는 그 구성인구가 LA전체에 퍼져 있는데 비해 명실공히 문화적센터의 중심지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나 코리아타운은 자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구역민을 이루었을뿐 타지역 주민들을 유입토록 하는 요인이 극히 빈약하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그 이유로서 코리아타운에는 가로수, 조경등 공공을 위한 환경미화시설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인근 주택가의 범죄, 낙서, 폐허등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운을 중심으로 충분한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지않아 인구과밀로 인한 수용능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도시계획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코리아타운의 경제적 재부흥을 위해서는 컴뮤니티 전체를 한국적 문화요소를 매체로 연결시킨 「코리아시티」 혹은 「코리언빌리지」등의 개념을 실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5개 계획안으로서 ▲「빌리지」개념에 의한 쇼핑센터 건립, 주차시설 확장등으로 LA시 전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고 ▲기존건물을 정화하며 범죄율감소에 주력 타운전체를 활기있는 컴뮤니티로 전환시켜야 한다. ▲가로수, 조명시설, 공공을 위한 각종 휴게장소 설치로 자체수용능력을 증대시키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영어교습강화, 고급인력을 위한 직업훈련등으로 컴뮤니티 구성원의 경제력을 키운다.

그리고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외부인에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전통적 디자인에 의한 교통표시판, 음료수대,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가로수 받침대등도 빼놓을수 없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국어간판이 즐비하게 늘어선 올림픽가. 그러나 LA한인타운은 문화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아직은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

야노버 9년·제롤 7년징역 선고

교포관련 디스코클럽 폭파사건

교민 문지식씨와 함께 블루어에 있는 「아비브·디스코클럽」을 폭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찰스·야노버(38)와 마이클·제롤(33)은 27일 욕·카운티법원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9년징역형과 7년징역형을 각각 언도받았다.

워드·H·알렌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들 2명은 80년 1월9일 발생한 디스코클럽폭파의 "중심인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범죄는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판결은 당초 21일하오로 예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되었다.

이들은 배심원들로 부터 2일간의 심문을 받은 뒤 「유죄」라는 평결(verdict)을 받았으며 지난주 검찰은 이들을 범죄성향이 짙은 위험인물로 평하면서 10년내지 12년 징역형을 요구했다.

◆야 노 버

문씨는 디스코·클럽폭파사건과 관련, 지난해 가을 유죄가 있음을 시인한 후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문씨는 디스코·클럽주인인 아비브가 클럽을 폭파해주면 1만달러의 현금과 보험금의 25%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그의 친구인 야노버의 승인을 받을때까지 폭파실시를 보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야노버는 형무소에 있었으며 문씨가 야노버의 형무소를 찾아갔을때 야노버는 폭파하도록 승인하면서 제롤을 만나 폭파에 쓰일 다이나마이트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문은 법정에서 털어놓았다.

야노버는 무기밀반출혐의등 범죄기록이 다양하나 제롤은 스폰지제조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범죄기록이 없다.

알렌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을 하는 제롤이 무엇때문에 돈500달러를 받고 다이나마이트를 건네주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유당인기 42년이래 최하위

보수당과 신민당은 인기상승

여론조사결과

보수당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집권자유당의 인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갤럽여론조사소가 발표한 캐나다내 각 정당의 인기도에 의하면 3월말 현재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52%를 차지하여 수위를 달려 3월초 50%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편 여당인 자유당(Liberal Party)은 3월초 30%에서 3% 하락한 27%를 얻어 1942년 이래 최하의 인기를 기록했다.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은 2%가 상승한 19%의 인기도를 얻어냈다.

1958년 총선직전 여론조사시 보수당은 60%의 인기도를 얻은 경력이 있으며 당시 자유당은 29%의 지지도를 얻었었다.

3월24일부터 26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여론조사에는 전국의 성인 약1,041명이 조사에 응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6.26원
CN$1.00 ＝ US81.45센트
금(런던) ＝ $533.14
은(토론토) ＝ $15.05/oz.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달팽이통조림」 주의하라!

불량품도난, 시중유출우려

메트로 경찰은 지난주 시내 오싱턴·스트릿(Ossington St.)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698상자의 「달팽이통조림」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수배에 나섰다.

14지역 경찰서의 머레이·리형사는 이 물품들이 캐내다 건강·복지성의 실험결과에 따라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압수상태에 있었다면서 "이 물품이 시중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당국은 현재 범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임을 주시하고 상인이나, 스토어주인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도난당한 통조림은 박스당 115그램용량의 통조림이 48개씩 담겨 있다.

도난물품의 싯가는 약 $21,000으로 추산된다.

"켄두추가판매 가능성 높다"

한국방문한 동력장관 언급

(토론토＝연합)한국방문을 마치고 금주초 오타와로 돌아온 신·크레티엔 동력장관은 캐나다가 한국에 또하나의 켄두원자로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타와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시티즌(Citizen)은 27일 크레티엔 장관이 한국에 캔두 2호기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은 향후 7년간 매년 원자로 1개씩을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레티엔장관은 방한시 월성에서 캐나다가 판매한 678메가와트짜리 켄두원자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캐나다연방정부는 한국에 캔두원자로 추가판매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크레티엔 장관의 한국방문의 주요목적도 켄두판매에 있었다.

북미노선 45% 할인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항공회사는 오는 6월10일부터 9월6일 사이의 여름철 성수기에 북미항공노선에 대한 항공료를 45% 할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나다내에서는 500마일 이상되는 항공노선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홀로리다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캐나다－미국 노선에도 적용된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여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부처님 오신날」 바자회 (선련사)

卍 품 목
● 불교서적과 잡지
● 불교음악(찬불가)및 범패녹음테이프
● 불상과 염주
● 선서화, 목판화(십우도), 불교그림엽서
● 먹, 붓, 벼루
● 한국가면(탈), 바가지예술, 비천상및 백제여인의 미소
● 탁본및 초의선사 사명대사 프린트
● 된장이외 식료품등 다수

卍 때 : 5월21일(토), 22일(일) 12시～6시

卍 장소 : 한국불교회 선련사
46 GWYNNE AVE.
(King & Dufferin)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 정기예금및 적금 ● 대출업무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높은 이자율 13.97%

카네이션 적금은 "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6960-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8 (416) 865-0456
●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5월5일 선수선발 테스트

본국동계체전 아이스하키팀 구성위해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산하 아이스하키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김종호씨, 이사장에 우회두씨를 선출했다.

개편된 기타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영현, 이종원

부회장: 김영상, 이상은

총무: 홍명원

섭외부장: 공재용

부이사장: 김현덕

총무이사: 이우창씨

한편 동 협회는 내년도 본국동계체전에 파견할 선수단구성을 위한 선수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5일(목) 오후6시 하이웨이27과 휜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웨스트·우드·체육관(West Wood Arena)에서 있을 이날 선수선발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별로 진행된다.

선발된 선수들은 수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본국체전에 출전하게 된다.

예년과 같이 많은 선수가 신청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날 응모하지 않은 사람은 파견선수선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응모하는 선수는 반드시 하키장비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77-6380, 792-6744, 622-0323으로 하면된다.

13만달러고지 육박

토론토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액

토론토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운동에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2주동안10명이호응2,710달러를 기부, 총모금액은 128,113달러에 달했다.

조한철 모금위원장은 27일 모금액이 13만달러의 고지에 임박했다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모금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한용식 $200
표한구 $100
김연오 $100
이돈희 $50
최상철 $30
윤덕조 $50
전세열 $50
장현수 $100
최원보 $300
이의열 $50
정대영 $30
왕운린 $100
최등영 $300
윤충태 $200
손경일 $50
곽정열 $1,000

"자녀1명인 비종교가정 이혼율 높다"

토론토의과대학의 정신과 주임인 켄틴·레그랜트박사는 캐나다의 고소득층 여성들과 저소득층 여성, 그리고 자녀가 1명뿐인 비 종교적가정들이 이혼율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의 이혼율이 점증하고 있으며 큰 이유중의 하나가 연방정부의 이혼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혼자 가운데는 대개 우울증, 정신이상, 범죄성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대부분 알콜중독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마약복용이나 폭행행위에 가담하는 율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토론토의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약1,000개의 질문서를 통해 이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보호 안전빗장 설치해야"

3층이상 아파트에…토론토시 관계법규 통과

토론토에 산재한 아파트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아파트의 창문에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랫취(Latch : 빗장)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추락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당국과 소유주들간에 벌여온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토론토시는 최근 안전빗장설치법을 통과했기 때문.

이에 따라 시내 약900여개의 아파트주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3층이상의 창문에 반드시 안전빗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법의 통과는 아트·이글턴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취임이후 계속 노력한 결실이다.

1971년 이래 토론토에서는 약13명의 어린이가 창문을 통해 추락사했다.

노스욕의 경우도 모든 아파트는 6세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안전빗장시설을 명령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상당수의 아파트주인들은 이 법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시당국은 앞으로 감독관을 통해 강력 집행할 방침이다.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떠한 회사가 얼마의 가격에 안전한 랫취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가에 있다.

시당국은 현재 2개 생산업체를 찾아 측정가를 내본 결과 개당 생산단가는 $2에 부착공료가 $15씩 들어 총$17 꼴이다.

녹음가능 시계등장

「세이코」 세계최초개발

(도꾜) 고밀도 집적회로(LSI)기술의 개발로 녹음재생 기능이 설치된 디지탈시계가 등장했다.

시계의 명문 「세이꼬 그룹」은 지난 20일 녹음테입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LSI에 디지탈 녹음하는 기능을 시계에 부착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 오는 6월28일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녹음가능 시계.

녹음시간은 아직 최대 8초간이란 아주 짧은 것이지만, LSI의 집적도가 높아지면 장시간 녹음이 가능하다.

시계에 설치된 LSI는 합계 4개로 그중 2개는 16킬로빗트스타틱 RAM(수시 기입, 낭독 메모리)으로, 이것이 데지탈화된 소리의 신호를 기억한다.

재생할 때에는 이 기억을 불러내어 다른 LSI가 신호를 합성하여 소리를 만든다. 그런데 아직 소리의 질이 충분하지 않고, 자동차 무선에서 들리는 정도라고.

소리의 질(음질)도 LSI의 집적도가 향상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녹음, 재생은 작은 단추를 누르면 되어 녹음기보다 간단하다. 짧은 녹음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 녹음단추를 눌러도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녹음이 가동하지 않도록 하는 회로가 장치되어 있다.

녹음시간 8초간은 짧은것같으나 약속시간과 장소를 시계에 녹음하는 정도는 된다. 이것을 시계의 알람(울림)과 함께 가동하도록 연결시켜 시간이 되면 미리 녹음해둔 용건을 시계가 말하도록 하는 사용도 가능하다. 가격은 일화 2만5천원.

『봄잔치』 개최

5월7~8일 브랙·크릭·파이어니어

블랙·크릭·파이어니어·빌리지에서는 오는 5월7일-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봄의 잔치(Spring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19세기 온타리오 시골의 정경을 회고하며 각종 놀이와 풍경을 재연한다.

옛날 병원과 약국 모습, 스콧티쉬 댄스, 농경장비및 농 기구전시 실연, 농장동물및 가축등을 볼 수 있다.

이날 관객들은 직접 구운 케익이나 빵을 구입할 수도 있고 화초와 각종 씨앗등도 구내매점에서 살 수 있다.

한편 각종 어린이쇼와 요술등이 실연된다.

블랙크리의 소재는 Jane St.과 Steele Ave. 선상에 있으며 TTC는 #35B, Jane St.이나 #60 Steeles West를 이용할 수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22>

헤로인 ⑰

"한국측 조직원이 죽인게 아닐까"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루미늄 가방 두개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하자 얼마후 짐꾼이 불려왔다.

「제가 가방 두개를 운반해주었지요.」

짐꾼은 벌벌 떨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내렸나요?」

「독실칸에서 내렸읍니다.」

「어떻게 생겼던가요?」

「키가 크고 잘 생긴 것 같았읍니다. 나이는 쉰쯤 되어보이고 밤색 통상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읍니다. 앞이 요렇게 납짝한 모자 말입니다.」

「캡 말이군요. 어디까지 날라다줬나요?」

「밖에까지 가져가서 지게꾼에게 인계했지요.」

「짐이 무겁던가요?」

「아니요. 별로 무겁지 않았읍니다.」

잠시 후 마형사는 지게꾼을 만났다.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지고갔읍지요. 돈을 후하게 주기에 한잔 걸쳤지요.」

지게꾼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다.

「그사람…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그야 모르지요. 저는 짐만 내려놓고 돌아왔으니까요.」

시외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서부터 범인의 행적은 뚝 끊어져 있었다.

수시간 후 피살체의 몸에서 수거한 탄환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그것은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특수 소음권총 이었다.

「사정없이 쏴죽인걸 보면 범인은 아주 잔인무도한 놈인것 같은데요.」

마형사의 말에 늙은 김형사도 동의했다.

「여자까지 죽인걸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야.」

「두 사람을 쏴죽이고 물건만 들고 간것을 보면 처음부터 헤로인을 노리고 달려든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게 누구냐하는거지.」

「박두목이 수지에게서 들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운반책은 모두 4명이었거든요. 그중 모세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일본인과 수지가 죽었읍니다. 이제 남은건 영국인인데 그자가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짓을 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건 왜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방 주인은 서양인이 아니었답니다. 한국말을 썩잘하는 한국인이었답니다. 영국인이라면 외모에서 그냥 표시가 나지요.」

「그렇겠군. 혹시 한국측 조직원들이 죽인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날 저녁 대전근교 야산에서 알루미늄 가방 두개가 발견되었다. 가방속은 텅비어 있었다. 산소에 갔다오던 마을 사람이 숲속에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도중에 순찰하던 순경에게 걸려들었던 것이다. 그 순경은 마침 알루미늄 가방을 가진 남자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터이라 그 사람을 지서로 연행했다.

朴男 그림

〈박희민목사 박사학위논문중에서〉

이민자의 적응과정

◆박희민목사

이민자들이 새땅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을 사회학자 허원무교수는 아래와 같이 도표로 표시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일곱단계의 기간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설명을 가하면 다음과 같다.

1)기대와 흥분(Excitement)

처음 새땅에 이민오게 되면 몇개월동안은 만족과 성취감에 도취하게 된다. 자기가 오랫동안 꿈꾸던 새 땅에 마침내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행복을 느낀다. 물질적으로 보다 풍요하고 문화적으로 보다 개발된 사회환경에서 느끼는 흥분과 희망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2)좌절기(Exiqency)

그러나 그러한 흥분과 기대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한다. 곧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인 충격, 생계의 위협과 사회적 소외감에서 오는 갈등이 그를 고독과 좌절로 몰아가게 한다.

이러한 좌절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그사람의 연령, 직업, 학벌, 성격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6개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민을 온 것이 잘한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후회하며 모국으로 다시 되돌아 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수없이 느끼게 된다.

이민올때의 기대와 현실의 무기력에서 오는 갈등과 좌절이 격심하다.

3)적응기(Adjustment)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차차 적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어도 좀 익히고 직업도 구하게 되어 생활에 안정이 어느정도 되어 가며 이곳 생활양식도 배워 흉내내게 된다. 수입도 차차 오르고 자동차도 사게되어 주말에는 신나게 교외를 달리며, 이곳 물질문명의 맛을 즐기기 시작한다.

4)낙관적기간(Optimum)

적응기를 지나 7년내지 10여년이 되면 대부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좋은 집도 사고 사업도 제법 커지며 직장생활에도 안정이 되어 이곳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제법 Canadianize가 되어 백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즐기게 된다. 이 기간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별로 아쉬움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백인이된양 행세한다.

가능한한 한국 코뮤니티에서보다 백인 코뮤니티에 끼여들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므로 자신을 뽐낼려고 한다.

5)자기신분에 대한 불일치성

낙관적기간도 몇년이 못가서 끝장이 나고 이민자로서 이 사회속에 파고드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을 깨닫게 된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민자들이 문화적동화(Cultural Assimilation)는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 or Acculturation)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완전한 케네디안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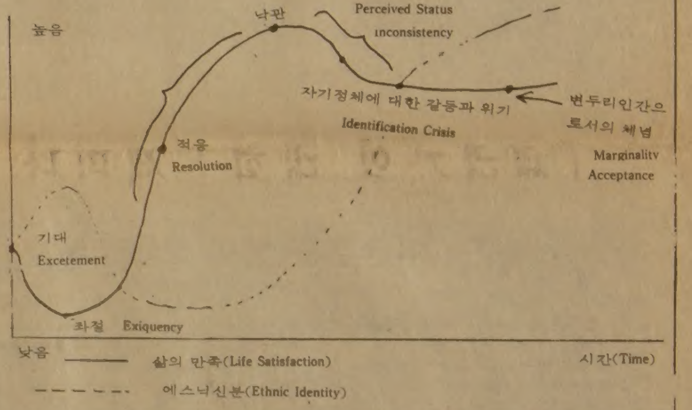
6)주체성의 위기(Identification Crisis)

이러한 자기신분의 불일치성(A Status Inconsistency)은 자연히 "주체성의 위기(Identification)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그는 마침내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는 자기자신이 순수한 한국인도 아니고, 순수한 케네디언도 아닌 반총적인인간(A byphenated person—a Korean-Canadian)인 것을 깨닫게 된다.

7)변두리인간으로서의 체념

이러한 생활은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에스닉영토에 자신들을 머물게 만든다.

그리하여 변두리 인간으로 체념하며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들에게는 처음 가졌던 꿈이나 기대도 없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원봉사자 모집

국제교환교육프로그램 본부

에글링턴 에비뉴에 자리잡고 있는 캐나다국제교환교육 프로그램 본부(책임자 : 제리·그리칠리씨)는 프로그램활동을 돕기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51년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국제생활의 경험(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을 모토로 국제 민간인 간의 교환생활을 통해 친선과 각국풍속이해, 견학등의 유익한 교류를 나누는 국제적인 운동이다.

학생교환실습, 민박, 관광, 견학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간 약10만명이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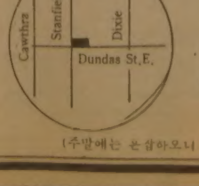
자원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토론토 : 961-6888, 노스욕 : 481-6194,

에토비콕 : 231-6521, 스카보로 : 264-2308등으로 하면된다.

소피아 미용실
개업1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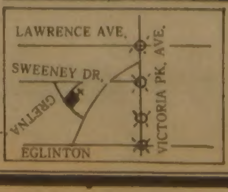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봉사가격으로 모십니다.



1133 Dundas St. 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주말에는 혼잡하오니 주중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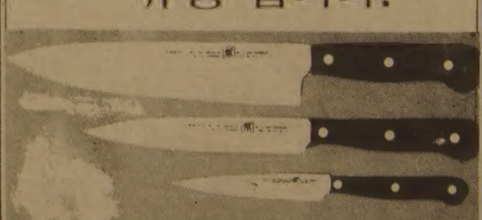
은혜의 시간



◆일자 : 1983. 5. 12(목)~15(일)
오후 7 시30분
◆장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강사 : 윤 철 주 목사 TH. M., D.D.
ㅁ대구 서현교회
ㅁ군산 개복동교회
ㅁ서울 남교회
ㅁL. A. 헤브론 장로교회

주최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ZWILLING J.A.HENCKELS
독일제 쌍둥이표
칼은 너무너무
유명 합니다.



◉품질 보장。
◉각종 부엌칼 종류 및 가위。
◉견고한 독일제 유명메이커。

〈빅·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 : 533-7966. 533-8110
대표 김 영 철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몬트리얼소식

지국장 정관성
지국 주소 6715 Pl Villon Brossad P.Q. J4W 2V4
전화 (514)672-8399

◆이규현대사가 참전용사들에게 참전기념메달을 달아주고 있다.

KVA 몬트리얼지부 창단

16일 에모리회관에서 기념식…이대사 참석

한국참전용사회 몬트리얼지부 창단식이 지난 16일 오후8시, 시내 애모리(Armoury)회관에서 약 400여명의 참전용사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캐나다 포병군악대의 애국가와 캐나다국가연주로 시작된 이날행사는 전사한 동료들을 위한 묵념, 본부회장 존·클락씨의 창단승인패증정, 각종감사패증정, 태극기, 캐나다국기, 패베주기, 몬트리얼시기,용사회기, 유엔기증정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캐네디언으로는 오타와정부의 워렌·알먼드씨 내외, 이브·매그난씨내외, KVA회장 존·클락씨 내외,용사회 Canada 총무인 돈·랜달씨 내외, 몬트리얼지부 파라디스장군 내외등이며

한국측에서는 이규현대사, 김창훈몬트리얼총영사를 비롯한 공관직원들과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규현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정세와 한·카관계를 설명하고 6,25때 보여준 혈맹의 우의를 치하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몬트리얼 한인학교(교장 : 정영섭) 학생 16명이 출연해 부채춤을 추었고, 최금오씨의 가야금독주,. 임도희양의 승무, 댄스파티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용사회 부인들이 손수 만든 불고기, 잡채, 김치등을 가지고 부페식 음식을 제공했다.

기발한 T-셔츠 고안

직장을 잃고 놀던 실업자

(몬트리얼) 지난 겨울동안 직장을 잃고 놀고 있던 한 실업자가 최근 기발한 티셔츠(T-Shirt)를 고안 당국을 당혹하게 해서 화제.

피어환즈에 거주하는 31세의 빌·라·버즈씨는 실직수당신청용지 색갈과 같은 노랑색 바탕으로된 면제품 상의에 콤퓨터글씨체로 수당타기가 힘들다는 상징의「포기·셔츠(Pogey Shirt)」라고 쓴 티·셔츠를 만들었다.

그는 "실업자들이 이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정부는 물론 시민들도 놀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셔츠는 이미 1,200장이상을 주문발주했는데 개당 $8,99로 팔리게 된다고.

낙관주의자라고 자칭하는 버즈씨는 현재 실업문제가 가장 큰 골치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셔츠를 만들게 되었다고.

◆참전용사회 몬트리얼지부 창단식에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범죄조직 싹터

알라스카한인사회

알라스카한인사회에 싹트고 있는 범죄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관여하고 있다고 앵커리지·데일리 뉴스지가 보도했다.

지난17일 데일리 뉴스지는 1면에서「앵커리지 한인들 FBI수사표적」이란 제목으로 연방수사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인사회범죄조직 가능성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작년12월29일 앵커리지의 교포 이회호씨 살해사건이 청부살인혐의가 농후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세대간의 대화」세미나

홀리데이인호텔, 60여 교민참석

몬트리얼 한인회(회장 정회수)는 지난 10일 시내 홀리데이인 호텔 루퍼트싸롱에서 약60여명의 교민들이 모인 가운데 「세대간의 대화」란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정회장의 인사에 이어 5명의 연사가 약15분씩 의견발표를 한후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토론내용은

가)세대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언어, 조부모님들의 역할, 부모님들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부족, 상호간의 이해부족, 가치관의 차이.

나)이문제가 어떻게 표시되는가?--가정생활의 불안, 세대간의 마찰, 자녀교육, 부부간의 마찰.

다)해결방법.--교회의 역할, 한인회의 역할, 가족의 공동활동, 세미나, 조부모님및 부모님들의 이민지생활양식에 대한 인식과 자녀들의 한국생활양식에 대한 인식 등이다.

세미나의 발표자로는 배한국목사(한인연합교회), 이은종목사(순복음교회), 노인자대표 방용성씨(노장회회장), 중간세대자대표 정영섭박사(몬트리얼대학), 학생대표자 윤승택씨(학생회총무)였다.

강사들의 발표요점은 다음과 같다.

▲배한국목사(한인연합교회)

캐나다시민권을 받았다 해도 문화면, 사회면에서는 여러가지 갈등을 겪는다. 또한 아무리 차원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자를 양성하는 이곳의 기술교육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동화보다는 내면적인 문제에 주력해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2세교육에 중점 두자.

▲이은종목사(순복음 몬트리얼교회)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인생의 참의미와 웃음과 여유를 많이 잃어버렸다.

아무리 고달프고 바빠도 인생의 참가치를 잊지 말도록 가정교육, 사회생활, 교회생활등에 적극활동하자.

레이건대통령이 현재 70세가 넘었으나 정신연령은 30~40대보다 젊다. 영국의 러셀옹도 80세에 세계평화의 기수노릇했음을 귀감삼아 삶의 의지를 가지자.

▲방용성노년회장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모든 일에 보람이 생긴다. 아무리 서양생활을 해도 가정관은 변할 수 없다. 가정에서 고유언어보존, 전통문화, 가족관계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영섭박사(한글학교장)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언어의 존귀성을 알아 어릴때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식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이민왔다면서 어느 정도 결과를 거두고 있는가? 대화가 너무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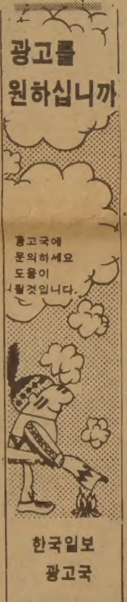
자식과 부모가 자주 만나 듣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는게 중요하다.

▲윤승택학생회총무

세대차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세대차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호신뢰하고 대화하고 아량과 존경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로,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어릴때부터 실물가정교육을 통해 가치관과 가정관을 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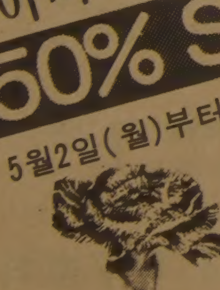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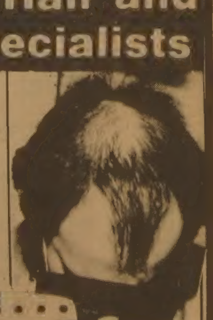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한국 事閥·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Mirage Boutique
어머니날 대매출
50% SALE
5월2일(월)부터 14일(토)까지

숙녀복 전문집
미라지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
☎:530-1870(권수회)

SONY Spring Values
특별대매출
SONY
비데오 SL·5000
$659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취급메이커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ennheiser
Sanyo A.K.G.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 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오전11시~오후8시
▲ (토):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독자페이지

보수당 대의원선거 기사를 읽고

박 찬 도 (토론토)

인간에게는 자유권이 있다. 자기욕심을 자유로이 부려도 되는 권리이다. 그 자유권에는 제한이 있다.

사람을 죽이면 안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되는 (법적인 권리제한)이 있다. 또 특권층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사회가 안되도록, 국민대중은 자기 처신을 경솔히 하여서 안되는 (도덕적인 권리제한)이 있다.

고무신짝 얻어갖고 악질인간에게 투표하는 참정권도 물론 자유로이 행사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의 내용이 치졸(稚拙)하면 비판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무신짝 얻어갖는 조그만 이익에 눈이 팔려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행위 현상을 일으킨다면 이는 법적인 제한가치보다 훨씬 중대한 도덕적인·제한가치를 소홀히한 무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부도덕 행위가 법 자체를 무법화하여 세상을 망하게 역할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법이되 위법·불법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 하겠다.

「무책임한 권리행사에는 특히 무기력한 권리포기의 생태를 자기 내부에 지녀 세상을 독재 질서화·무법화시키는 성질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자유권 행사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비판받으면 그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이상의 부도덕성이 그안에 있을수 있는 것이니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대드는 태도는 부당한 것이며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로 안다.

며칠전 이곳 토론토에서 보수당 대의원 선출투표가 있을 당시 한국사람들이 많이 나와 줄지어 「죠·크락」씨를 지지하는 투표를 한것이 캐나다 언론을 통해 시비가 된것 같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고무신짝 막걸리 선심공세에 넘어가 온당치 않은 권리 행사를 하는것과 만일에 과욕심리로서 특정목적이나 성과에 사로잡혀 신문기사대로 영어도 모르는 급조(急造)당원이 경솔하게 무더기로 투표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나라에 나쁜 질서가 생길 소인을 키우며 (따라서 우리에게도 언제인가 해가 올 것이며) 또한 한국사람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할 것이다.

물론 이곳 자유사회에서는 옳지않은 권리행사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니 다행이긴 하나 여하간 우리의 권리행사가 적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 내용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겠다.

우리가 정치 경제활동을 유리하게 해 나갈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일은 필요한 일로 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정치활동을 경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권리 내용이 아닐때 사회에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정치 참여의식부터 갖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추기)사실은 나 자신이 보수당에 적을 두고 있고 「크락」씨를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를 당선시키는 목적보다도 그 수단절차에 (기본질서를 조성시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Happy Birthday

이 영 주(가정주부·몬트리얼)

이제 나이가 지긋이 먹어간다.

젊었을때 남들이 50이 가까운 나이를 먹어가면 꽤 늙어가는 축으로 보고 한심스러워 보였으며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초년 할머니로 생각하고 측은한 생각조차 가졌었다.

그리고 그 옛날 40고개를 넘어선 일가아주머니 한분이 예쁜 옷을 자주 갈아 입으며 화려한 모습으로 나들이를 하는것을 보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예뻐보여 칭찬을 해주니 40이 넘어서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것이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나는 이민생활에 쫓기다보니 최후의 발악할 사이도 없이 40이 넘고 50이 가까와지는 한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오늘이 나이를 한살 더 먹게 해주는 생일인데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나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아빠의 생일도 소리없이 넘긴 헌처라 내 생일을 챙긴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었다.

내 생일에 나이를 계산해보니 꽤 먹었구나 싶은게 은근히 무심히 보낸 시절이 원망스럽기도 하여 아빠가 베풀어 준다는 호의를 받아들이고도 싶었다.

그런데 요즈음 가게의 구멍을 메꾸느라 정신없는 아빠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준다는 것도 극구 사양하고 가게에서 명상에 잠겨 있노라니 전화벨이 따르릉 울린다. 받고보니 나에게 기쁜 소식을 잘 알려주는 그이의 목소리다.

오늘 저녁 당신생일을 위해 올케가 시누이 생일잔치를 해주겠다니 우리 이웃이 그곳으로 모이기로 했다며 내가 답변할 사이도 주지않고 자기는 오늘 아들애가 학교에서 부상을 당해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올케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와 꼭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다. 역시 기쁜 소식이지만 사치스럽고 미안한 생각뿐이다.

사랑을 베풀어보지 못한 내가 이웃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만하는 것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타당치 않은 일이다.

사랑을 먼저 베푼 자가 앞서는 것인데 늘 남에게 빚지고 사는 셈이다.

그러나 사랑은 받아야만 줄 수 있다는데 내게 사랑을 주심으로 남에게 베풀어 보라는 따뜻한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것도 같다.

따뜻한 올케의 정이 고마와 가게일을 끝마치고 친구들과 모여 동생집에 찾아가니 귀여운 조카들이 늦게까지 자지않고 눈망울이 또렷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식탁에는 미리 준비한 아기자기한 저녁찬이 차려져 있다.

봄냄새를 풍기는 입맛돋구는 음식들이다. 즐거운 이웃들이 한곳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족한데 생일송을 불러주고, 정성들여 포장해준 선물을 풀러 보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들어 있었다.

나이 한살 더 먹어야 되는 내 생일은 나이를 덜어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파티를 만들어준 형제, 친구들에게 그저 감사하며 잊혀지지 않는 Happy Birthday 였다.

도나·밀스 각광받아

CBS의 놏츠·랜딩에 출연

◆도나·밀스

CBS의 「놏츠·랜딩(Knots Landing)」에서 애비·커닝햄 역을 맡고 있는 도나·밀스가 새로운 인기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다. 39세의 도나가 애비역에 발탁된 것은 「요염하고 남성을 베드로 유혹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출연진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도나지만 애비역을 맡은 도나가 누구못지 않게 「양심이 없는 못된 여자」로 능란한 연기를 보여주어 「놏츠…」를 인기연속극으로 살려놓았다는 것.

작가들은 애비를 부드럽고 선량한 여성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도나자신은 「교활하고 나쁜 여자」로 부각시키려고 무척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이 적중, 도나가 연출하는 애비는 다른 남성배역의 성격을 살리는 「양념과 같은 청량제」가 되었다고. 도나가 신경쓰는 것은 애비에게 맞지 않는 극중대사. 도대체 그따위 대사를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도나는 불평한다.

한편 그녀가 이 연속극에서 입은 의상은 주로 비키니, 얇은 란제리, 몸에 꽉끼는 청바지. 도나는 「제작진들이 가능한한 자주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그녀를 벗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만 50도가 되는 춥고 바람이 쌩쌩 부는 바닷가에서 그런 옷차림은 견디기 힘든듯. 그녀가 입는 청바지는 안에 종이 한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꼭 붙는다.

5피트4인치 키에 현재 1백4파운드의 그녀는 1백2파운드를 향해 체중조절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도나는 「놏츠·랜딩」이 출연하는 여배우들에게 의상비를 적게 지출하는 쇼라고 폭로한다. 라이벌 연속극 「다이내스티」는 한회에 세명의 여주인공에게 1만달러의 의상비를 썼지만, 「놏츠…」는 7명이나 되는 여주인공들에게 그것의 3분의 1도 안 쓸 정도라고.

삶의 가치

장 정 숙(스카보로)

"딱" "딱" 소리가 가까와 오더니 "찌-매"하고 가게의 유리문을 긁는 소리가 났다. 반사적으로 나의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그 쪽을 본다.

"아이구, 저 사람이 또 오는구나!"

이젠 별로 놀라지는 않지만,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여차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면서 바라본다.

약두달전 부터 우리 가게가 있는 이 몰에 한 장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투른 솜씨로 보아 아마도 장님이 된지 얼마 않되는 것 같다. 40대중반의 좋은 체격을 한 그 백인남자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양 어깨를 활짝피고 발을 옮기기 전에 우선 지팡이(지팡이라기 보다는 방향을 탐지하는 막대기)를 먼저 내밀어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야 발을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게는 정면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서 정면 전체가 진열장이다. 그 장님이 곧 바로 잘오다가도 우리 가게 앞에 오면 어찌할바를 몰라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고 그럴때마다 나는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뛰어나가곤 했다.

아무리 장님이기로서니 너무 둔하다. 이러다간 한번 일을 치르고야 말지…. 진열장 속에 있는 값진 도예물, 크리스탈을 막아서듯 하면서 나는 속으로 마구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그런데다가 그 장님은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행여나 누가 곁에 가서 팔이라도 붙들어주면 조용한 낮은 목소리로 "No, Thank you" 하는 것이다. 그 장님이 이리 저리 부딪치고 헤메이고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본다.

오직 본인만이 태연자약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꽤 오랜동안 그러한 나날이 있은후, 나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옹졸함을 느끼게 되었다.

장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 가게가 얼마나 원수 같을까? 남의 가게들은 다 반듯한데 이건 왜 이리 복잡하며 게다가 복도에 나와있는 물건도 있으니 태산위에 또 태산이요, 말할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때때로 나도 장님이 될때가 있다. 밤에 식구들이 다 불을 끄고 자리에 든 다음 TV를 보던 지하실에서 부터 올라와 응접실을 통하고 복도를 통해서 내 침실로 들어갈 때 얼마나 더듬는가?

밤 낮으로 만지는 문의 손잡이도 못찾아 헤메지 않는가?

두달이 되어오는 요즈음 그 장님은 제법 잘 걷게 되었다.

하루에 두차례씩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그를 볼때마다 나는 그가 사는 세계를 그려본다.

아마도 우리가 그에게 느끼는 연민은 어쩌면 우리의 일방적인 감상이며, 눈뜬 자의 독선일지도 모른다.

육신의 눈은 덮혔어도 예지의 세계를 향하여 또박 또박 걸어가는 생명의 존귀함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면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오히려 눈을 뜨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동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 옛날에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알렉산더대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대왕이여! 내 앞에서서 햇빛을 가로 막지 말고 비켜주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요"했던 것처럼 그 장님은 오늘도 달려가서 도우려는 사람들을 거절하며 묵묵히 지팡이를 내세우고 걸어가고 있었다.

〈연재소설〉

혼돈 ⑪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들고온 짐들을 한쪽 구석에 몰아붙여 놓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였다. 머릿속에는 서울의 거리가 아른거리고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랐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떠난다고 부산을 떨던 내가 벌써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여기까지 와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슬퍼지고 외로워졌다. 눈물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한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눈물을 문질러 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노트를 가방에서 꺼내 리스트를 작성했다.

우선 노트를 네개의 직선을 그어 구분하고 성명, 성격, 재산, 가족상황란을 적어 넣었다. 이것은 내가 이년동안에 옮거내야할 토론토의 내노라 하는 부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것을 끝낸 나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잠을 자기 위해 옷을 벗었다. 내일부터 무대에 나가 춤을 추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몸이 부드럽기 때문이었다. 팬티와 브라자만 남기고 옷을 다 벗어버리니 날것같은 기분이 들었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조그만 거울에 몸을 비추며 슬슬 흔들었다. 젊음이 터질 듯한 내 육체는 심한 굴곡을 형성하며 요동을 쳤다. 자족감과 자신감이 차오르며 야릇한 쾌감이 전신을 휘감아 왔다.

"나는 자신이 있다. 2년안에 나의 아성을 쌓고, 내위에 군림하며 나를 짓밟던 남성들을 정복할 자신이 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몇시쯤 되었을까?

창문이 훤히 밝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소리가 쿵쿵 들렸다. 늦잠을 자지나 않았나 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8시면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닌데 집안이 어수선한 것을 보면 식구들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 없다. 잠자리를 적당히 정돈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디가 나가시면서 모시고 오라고 하던데요?」

나는 문을 열었다. 김사장을 많이 닮은 청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집 아들입니다.」

「네에――」

「짐을 다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던데…」

「저기, 아직 세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빨리 하고 나오세요,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무뚝뚝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서두르면서도 은근히 부화가 돋았다. 아무리 팔려온 몸이지만 첫날부터 아침밥도 안주고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치밀어 세수도 화장도 차분히 할 수가 없었다.

「참자! 참자! 이보다 더한 수모도 겪어 온 내가 아니냐?」

스스로 진정시키며 짐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엔진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가 내 짐을 받아 차에 넣고 나를 앞자리에 앉힌 다음 말이 없이 차를 몰았다.

복수의 첫남성으로 김사장을 선정한 그녀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처럼 앞만 보며 차를 몰고 있는 그를 흘끔 바라보면서 투명하게 물었다.

「아가씨가 살 집으로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뭐가요?」

「제가 이사하는게 말이예요.」

「나도 모르겠읍니다. 얼굴이 조금 반반한 아가씨가 오면 항상 이러니까요.」

「그럼, 못생겨야 아침밥이라도 먹이고 쫓아낸다는 말씀인가요?」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허 웃었다.

「아가씨는 어제밤에 우리집에서 자지 않았나요?」

「왜요?」

「아가씨 때문에 일어난 어젯밤의 대전쟁을 모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판 하셨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오밤중에 아가씨방을 기웃거리다 어머니한테 들켰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염려 마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서울에서 그가 흘리던 점잖은 웃음과 거드름을 상기했다. 수영복을 입히고 심사를 할 때도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었다. 그는 결국 가면을 쓰고 수준높은 연기를 하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나는 한편으로는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제일 먼저 그를 내 앞에 꿇리고 정복할 예정이니까…

(계속)

영남향우회

제2회 친선골프대회

- 83년 5월21일(토) 상오11시
- 리치몬드 힐
- 참가자격-OPEN
- 회비 : $35(디 너포함)
- 시상 : 그로스챔피온(애뉴얼트로피)
  그로스 1,2,3등 트로피
  네트A조 1,2,3등 〃
  네트B조 1,2,3등 〃
  네트C조 1,2,3등 〃
  Longest Drive
  Most Honest등 기타상품 다수.
- 신청마감 : 5월21일
- 연락처 : 백경락 755-7635
  장필규 822-6438
  MR. 박 279-4707
  위정남 251-9587
  신종화 921-4466
  정상우

영남향우회

부흥성회

김계용 목사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멤버신학석사
상항 장로교신학 D. MIN.
벌링톤대학 명예신학박사
예수교장로회 전도부총무. 브라질선교사
미주장로회 총회장역임
현재 LA영락교회 당회장(북미한인교회 최대의 교회)

집회시간

5월12일(목) 13(금) 14(토) 15(주일) 7시30분
5월14일(토) 조찬기도회 아침7시 중공방문강연
14일(토) 성경공부 오전11시
주일새벽기도회(15일) 새벽6시30분

토론토영락교회 126 O'CONNOR DR. at PAPE AVE. (416)423-9880
담임목사 김재광

탁구협회

임원·이사회
소집공고

카나다 한인탁구협회 임원및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임원및 이사제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 5월6일(금) 오후8시
장소 : 한 국 관

카나다 탁구협회
회장 차 선 행

"精銳특공부대 前方배치"

國會 13개常任委 정책질의 답변

"改憲 고려한바 없다" 답변
"청소년 犯罪 대책은" 질문

국회는 25일 13개常任委를 일제히열어 소관부처의 現況보고를 듣고 일부常委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外務委는 국제의회연맹(IPU)의 서울개최등을 방해하려는 北傀의 策動대책을 집중 추궁했고、內務委는 경찰의 폭행수사와 청소년 犯罪대책、法司委는 盜犯검거문제등을、改憲說의 진상을 물었다。

★錄音3면

外務部 李範錫외무장관은 『뉴욕·타임즈紙의 改憲說보도내용과관련、이문제로워커駐韓美대사가우리정부에 사과한일은없다』고밝히고 『南北韓交叉승인을위해 日本에 우리의 對中共、對蘇접촉을 위해식 공적으로 협조를 부탁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大韓海峽봉쇄시 우리나라와 사전협의 문제와관련、『일본측은 有事時 해협봉쇄의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나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서 사전협의를 示唆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許景九(民韓)李慶淑(民正)林德圭의원(국민)등은 이날 질의를 통해 ▲美뉴욕·타임즈지에 보도된 改憲說▲한국이누리고있는 국제적우위를 시기하는 北傀의 방해외교▲韓美외무장관회담 ▲非동맹외교대책등에 관해 물었다。

國防委 黃永時 육군참모총장은 軍현황보고에서 『육군은 완벽한 攻勢기동작전으로 敵의 부분적도발을 분쇄함은 물론 地上戰에 관한한 절대적 勝戰태세를 이미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육군은 전방에는 강력한 기동타격력과최신장비로 무장한 精銳특공부대를、후방지역에는 軍·官·民 합동機動打擊隊를운영하는등 전국토일원에 걸친 대응책을 확립했다』고 말하고 『특히 야성과 패기에 넘치는 공세기질의 精銳요원을 주축으로하여 首都圈 방어태세도 완벽하게 갖춰놓았다』고 밝혔다。

內務委 盧泰愚내무장관은 『경찰의 고문수사에 대한 자체보고를 받은바가 없으며 앞으로 수사보고체제를 적절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새마을금고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연계운영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덕방 소개업소의 업소난립과 규제미비대책의 개선방안으로 6대도시특정지역에는 복덕방소개업을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바꾸고 그이외의지역은 신고제로하겠으며、국가자격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公認仲介士자격증을 주고 일반중개인과 구분하겠다』고 밝히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물건을 확인토록하는 방안과 損賠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등을 만들어 금년내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어 『미성년자의 유흥업소출입을 막기위해 주민등록증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나 국민에게 주는 불편을 고려、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李在奐 金容大 林芳鉉 孟殷在 全炳宇(이상 民正)柳寅範 金泰洙 李英駿 朴寬用 申宰休 柳畯相(이상 民韓)曺德鉉의원(국민)등은 질의를 통해 ▲강압수사방지와 과학수사、공개수사의 확대방안 ▲認許可업무의 축소방안 ▲서민보호대책과 小都邑가꾸기및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 ▲과외단속현황등에 대해 물었다。

法司委 金永均法制處長은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한바도 없으며 정부 어느부처에서도 논의된바 없다』고 밝혔다。

金처장은 이날 市中의 改憲說을 묻는 의원들의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현행헌법이 南北韓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있지만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연구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立法豫告制실시에 대해 『대통령令을 마련、현재 각부처의 의견조회가 끝났으며 오는6월중순이나 7월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土地의 公槪念에 대해 『여러나라의 제도를 연구검토했으며 관계부처에서 立法을 필요로할경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자료로 준비하는 李外務 25일하오 국회外務委에서 의원들이 질의를하는동안 李範錫외무장관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있다。

국회懸案문제등 논의

어제 3黨3役모여

民正 民韓 國民등 3黨의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들은 25일저녁 各黨의 黨職개편후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과 지방자치제실시등 국회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蔡汶植 국회의장 초청으로 汝矣島의장공관에서 의장단과 함께 가진 이날모임은 앞으로 對話정치를生活化시키기위해 이러한모임을 자주 갖기로 하는 한편 與野간에爭點이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地自制등 소위 政治議案처리를 대화를통해 풀어가기로 의견을 보았다。

「國會法小委」해산요구

民韓、民正에통고

與野간의 정치적 爭點으로 지난2년간 국회운영위에 계류되어온 국회법개정안문제는 오는 4월말의 處理時限을 앞두고 民韓黨측이 국회법개정小委의 해산을 요구하고나서 새로운 局面을 맞고있다。

民韓黨은 25일 국회운영위에서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小委활동에 不參할것을 民正黨측에 통고하는한편 小委의해산을 요구하고 나서 小委활동은 사실상이날로 중단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民韓黨의 朴寬用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與黨은 국회법개정에 무성의할 뿐만아니라 民正黨의 대표위원이 不改正의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실무적접촉은 무의미하다』고 小委활동을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열린 운영위국회법심사 小委에서도 民韓黨은 이같은뜻을 밝혔는데 林鍾基총무는 이와 관련、『국회법 개정에대해 여당의 성의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4월 처리의 공약마저도 違約될 전망이 짙은 상황에서 더이상 실무적인 小委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국회법심사小委는 운영위의 결의사항이므로 民韓黨측의 해산요구가 있다하더라도 활동중단을 위한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小委해산요구는 정치적절충의 여지가 있는만큼 별도의 의제로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小委활동은 그동안 16차례나 진행되어 왔기때문에 정치적 절충과 병행해 실무적 차원에서의 小委활동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PU 서울總會 존중

執行委 共産側반대안 7대2否決

【헬싱키=聯】國際議會연맹(IPU)집행위원회는 IPU이사회의 공식개막을 하루앞둔 24일(현지시간) 말라가시등이 제안한 추가의제를 토의、금년IPU총회를 서울서 개최키로한 작년9월 로마총회의결정을 존중하도록 건의키로 가결했다。

한국IPU대표단의 鄭善燮임시대변인(民正黨의원)은 이날하오6시께 기자회견을갖고 이번 IPU제1백92차 집행위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IPU이사회 제1백32차 의제준비와관련、차기총회 장소변경을제의한 3개제안추가의제)을 토의한결과 지난해의 로마총회결정을 존중、이 추가의제를 다시 거론치않는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집행위가 일단 한국측이 원하는대로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말했다。

또한 일포·포올라 핀란드공보비서는 기자들에게 이같은 추가의제채택반대결정이 이날상오 표결에의해 찬7표、반2표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추가의제를첨부한 이와같은 내용의 건의서를작성、이사회에 회부하며 이사회는 마지막날인 오는29일 이건의서를찬자、추가의제를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이것이 의제로채택된다면 IPU이사회는 토론을거쳐 다시표결을통해 최종결정을 내리게된다。

현재 IPU집행위에는 금년 IPU총회 서울개최(10월)를 재고하자는 제안이 3건이나 나와있는데 하나는 北韓에동조하는 말라가시가 지난3월9일 처음으로 내놓은것이며 이어소련과 몽고가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제안을했고 다시 기니가 또다른 하나를제출했다。

IPU집행위는 이번 이사회의장대리인 벨기에의 에밀·크벨리에가 위원장직을맡고있으며 회원국은 헝가리·오스트리아·수단·스웨덴·東獨·카메룬·스리랑카·영국·필리핀등이다。

"주요施設 경계強化를"

全대통령 어제새벽 서울市警·KBS·國防部시찰

◇全斗煥 大統領이 25일새벽 국방부에들러 근무상황을 살핀뒤 관계관들을 격려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5일새벽약 3시간동안서울市警、한국방송공사、국방부등을 차례로 예고없이들러 근무상황과 경비태세를 점검한뒤 『北韓공산집단은 핀란드에서의 뇌물사건등으로 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 저지를위한 1차적인 외교적노력이 실패해 2차로 서울시내 주요시설에폭발물을 터뜨리는등 무력도발을 해올가능성이 있다』고분석、방송發電 통신 給水등 주요시설에대한 경계를 그어느때보다 강화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나까소네首相과 전화通話

全斗煥대통령은 25일하오 청와대에서 일본의 나까소네(中曾根康弘)수상과 약15분간 전화通話를 가졌다。

이달말께 東南亞국가연합(ASEAN)각국순방을앞둔 나까소네수상의 요청으로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나까소네수상은『아세안각국을 방문케돼 이를 각하에게 알려드린뒤 떠나려고 인사차 전화를 걸게됐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에대해『政務로 바쁘신가운데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아세안지역국가들은 이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 매우중요한만큼 이번방문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全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의 전화통화는 나까소네수상취임후 이번이 4번째이다。

東亞건설서 共榮 인수

李·張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의 피해 기업으로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共榮土建과 계열회사인 東海生命의 소유·경영권이 東亞建設로 넘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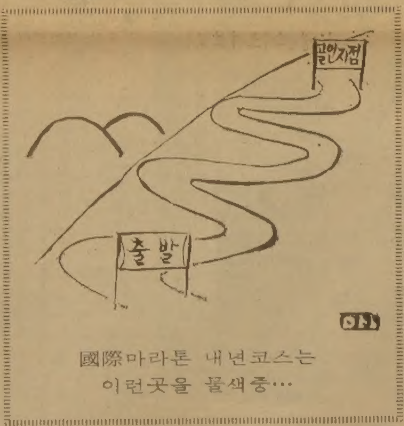
共榮土建의 주거래은행이며 주채권자인상업은행도 서울지방법원의허가를얻어 25일자로동사의법정관리인 禹在九씨 대신 상업은행 법정관리인으로 교체하고 회사정리법 98조에따라 역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 공영토건과 동해생명의 인수를 전제로 東亞建設 崔元碩회장을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崔씨가 대표로 있는 東亞建設이 이날부터 共榮土建의 건설공사시공및 신규수주등 모든경영업무를 맡게되었다。

東亞建設은 이날 하오부터 共榮土建의자산및 재무제표에대한 실사에 착수했으며 실사가끝나는대로 東海生命과함께 이회사의인수절차를 밟을것으로보인다。

共榮土建은 지난해 李·張부부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82년5월11일자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확정된 채무는 현재 4천5백9억7백13만3천원이다。

社会漫評



國際마라톤 내년코스는 이런곳을 물색중…

地平線

올해의 윔블든·테니스·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하는 남자는 6만6천파운드의 돈벼락을 맞게된다。우리 돈으로 7천8백30만원이 넘는 돈이다。여자선수는 6천파운드가 적어서 7천1백22만원이 된다。『세계제1의 테니스·토너먼트로서의 명성을 지키기위해』올·잉글랜드·클럽당국이 전체 상금액을 작년보다 64.9%나 껑충 올린것이다

▼스포츠는 명성과 함께 돈벼락을 안겨주는 행운의 길이다。미국의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선수들은 한해평균 23만5천달러、한달에 1천5백20만원을 받는다。농구선수가 한해 21만5천달러로 한달평균 1천3백90만원、하키선수는 뚝 떨어져서 한해 12만달러로 한달평균 7백76만원 벌이 된다。축구선수는 더 떨어져서 한해 9만5천달러로 한달평균 6백14만원이다。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외과의사가 한해평균 20만달러를 버는데 권투선수는 단판승부에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우리돈으로 39억원에서 77억원이상을 번다고 비교한 사람도 있다。학교 선생님은 한해에 9개월 일하고 1만~3만달러 받는데、야구선수는 7~8개월 뛰고 1백50만~2백5만달러 (11억6천4백만~15억5천만원)의 수입이다。

▼스포츠는 「기록」에 도전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돈이나 명예보다 스스로 성취하려는 꿈이 동기다。지난24일 서울국제마라톤에서 1백리길을 뛴 사람들중에는 쟁반에 음료수병을 받쳐들고 풀·코스를 달린 사람이 있었다。여자 1위는 12살된딸을 둔 30대의 어머니였다。자기자신과 싸워 기록에 도전한 인간들이다。

▼미국에야 대게못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차츰 운동선수들이 스타덤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그러나 1백리길을 달리는 마라톤처럼 스포츠는 자기자신과 싸우는 순수한 대결정신만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자칫 균형을 잃은 프로운동 과열이 그러한 순수성을 잃게하고、대학의「인기학과」나 부동산투기처럼 스포츠전체의 균형을 잃게하지않도록 조심해야겠다。이번 체육주간이 국민전체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해밀톤·버링톤 실협공고

해밀톤·버링톤 실업인협회는 1983년4월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해밀톤·버링톤 실업인협회 이사회에서는 1983년4월2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 부회장,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인준하였읍니다.

회 장 : 신 정 균
부회장 : 권 택 규
총 무 : 임 재 량
재 무 : 이 철 민
사 업 : 강 장 석
동부마운튼 지부장 : 심 봉 명
서부 〃 〃 : 차 동 훈
Oakville 지역 : 박 만 기

해밀톤실업인협회 이사장 대리 장 근 원

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首相 사임
總選서 과반수 의석확보 失敗로

【빈AP·UPI=聯】브루노·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수상(72)은 24일 그의 집권사회당이 이날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수의석확보에 실패한데 따라 패배를 자인하고 수상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총선에서 집권사회당은 종전의석에서 5석이 줄어든 90석을 얻어 총1백83석중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야당인 보수계의 인민당은 77석에서 81석, 자유당은 11석에서 12석으로 각각 4석과 1석을 보탰다.

美高金利정책 論議
7개 先進國 會議

【파리·東京AP·共同=聯】오는5월28일부터 3일간 美 버지니아州의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릴 7개선진국정상회담준비를 위한 일련의 회의가 25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행위원회가 25·26일 열리는데 이어 5월9일과 10일에는 OECD각료회의가 열려 美國의 고금리경제회복분제등이 논의된다.

美, 퍼싱Ⅱ發射성공
18回예정중 9번째

【화이트샌즈미사일시험장(뉴멕시코州)UPI=聯】금년말부터 유럽에 배치할예정인 미국의 퍼싱Ⅱ중거리핵미사일의 시험발사가 24일 성공함으로써 이 미사일시험계획의 반을 마쳤다고 美육군대변인이 밝혔다.
美육군의 데이비드·올름스테드소령은 이번 시험발사는 18회로 예정된 시험중 9번째의 것으로『발사와 동력추진비행이 정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라소프스키 死亡
蘇 空軍元帥 85세

【모스크바聯】2차대전당시 소련공군을 지휘하기도했던 소련공군원수 스테판·크라소프스키(85)가 사망했다고 소련TV방송이 24일 보도했다.
크라소프스키는 2차대전당시 나치독일군을 몰아내기위해 크루스크및 기타 주요전투에서 소련공군의 공격작전을 총지휘했으며 특히 베를린대공격시 소련공군의 총수자리에 있었다.

터키, 정치活動 禁止조치 해제
지난 80년부터 施行…總選길터

【앙카라AP·UPI=聯】케난·에브렌대통령이 이끄는 터키國家安保評議會(NSC)는 24일 지난 80년부터 시행해 온 정치활동금지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올가을이나 내년초로 약속된 총선실시의 길을 열어놓았다.
터키관영 가제트紙는 NSC가 이날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온 포고령제70號를 해제했다면서 이에따라 모든 터키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한편 합법적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美, 宇宙戰武器개발
5年間 70억弗投入

【워싱턴UPI=聯】美국방성은 지난달 레이건대통령이 제안한 미사일요격체제를 실현하는데 근간이될 우주전쟁무기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70억달러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民主黨전당대회
샌프란시스코로

【워싱턴AP·UPI=聯】미국民主黨은 21일 레이건대통령의 출신지역인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를 84년전당대회개최지로 결정했다.

美에 蘇間諜 千여명
軍機密등 첨단기술노려
아세안·西歐서도 暗躍

◇엇갈린 표정 오스트리아총선의 중간개표결과가 24일밤 속속밝혀짐에 따라 3개정당지도자들이 서로 엇갈린 표정을짓고있다.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한 브루노·크라이스키 수상㊧이 침통한표정으로 중간집계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반해 이번선거의 승리자인 인민당수알로이스·모크㊥와 1석을 추가한 자유당수 노르베르트·슈테거㊨가 만족한 웃음을 띠고있다.【빈24日AP電送=聯】

【홍콩·워싱턴聯】최근 각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있는 소련간첩들이 수난을 당하고있다. 파리와 런던에서 추방되는가하면 일본에서도 미국으로 망명한 전 소련 간첩 스타니슬라프·레프첸코의 폭로로 정보망의재건이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초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주간 아시아위크지의 자카르타주재 특파원 조헤르·압둘카림을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과 인도에서의 간첩행위도 폭로되었다.
▲이탈리아=이탈리아는 국내에서 암약중인 소련과 동구및 제3세계국가의 간첩혐의자 1백명의 명단을 작성중에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추방할지 모른다고 이탈리아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신문보도들은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작성중인 스파이혐의자 명단은 ▲소련시민과 ▲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동독등 東歐人들 ▲親共産圈제3세계국가들의 외교관및 통상대표단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美國=美國내에 상주하는 소련및 東歐圈외교관 3천여명중 30~40%에 달하는 1천여명이 간첩활동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수집한 비밀자료정보를 외교관소포등을 통해 밀반출시키고 있다고 윌리엄·웹스터 FBI(美연방수사국)국장이 24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웹스터국장은 이들 첩자들은 최근 군사기밀외에 첨단의 레이다·컴퓨터·마이크로기술과 관련된 정보나 샘플을 빼내려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주의깊게 살피고있다고 덧붙였다.
▲英國=런던주재 東獨副대사가 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비밀경찰)와 내통하면서 영국에서암약해온 거물공산간첩들 가운데 한사람이라고 24일 메일紙가 보도했다.
▲필리핀=유리·솔모프가 마닐라주재 소대사로서 대사관에는 무역사절단과 선박회사·타스통신·이즈베스차지·노보스티통신등 외 직원을 포함해 90명 내지 1백명의 직원이 일하고있다.
KGB책임자 블라디렌·아브슈코프는 1등서기관으로 위장하고있다.
▲말레이지아=上海와北京대사관에서 근무한바 있는 보리스·콜리코가 대사로 있다.
KGB책임자는 비야체슬라프·세메노프(46)로 대사관 부사무관으로 근무한 동남아전문가이다.
GRU (소련참모본부정보국)책임자는 대사관직원으로 위장하고있으며 무관인 유리·구체코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있다.
▲싱가포르=대사는 표도르·포타펜코. KGB책임자는 블라디미르·미쿠노프로대사관 참사관으로 위장하고 있다. 미쿠노프는 북경에서 오랫동안 대사관 서기관과 노보스티통신기자로 활약했고 싱가포르에서도 근무한적이있는 표준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전문가이나 성격이 교만하여 포타펜코 대사와의 관계가 좋지않아 모스크바로의 귀국을 원하고있다.
▲타이=대사는 루리·쿠프네초프.
현재 29명의외교관과 37명의 일반인이 정부부와합공회사, 무역대표부, 타스통신, 프라우다지의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외에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E)에 15명의 소련관리들이 있다.
KGB요원은 1등서기관으로 위장하고 있는 예프끼니·하리토노프와 무역대표부의 2인자인 빅토르·바신코및 ESCAP대표 에르네스트·오브민스키등.
▲인도네시아=대사는 이반·시페드코.
동남아주재 소대사관으로서는 가장많은 41명의외교관을 주재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어를구사할줄 아는 중국전문가들이다.
GRU 책임자는 보리스·베즈스메르티니로 해군무관으로 위장.

蘇도 美외교관 追放

【모스크바AP=聯】레닌그라드주재 미영사관의 D·쇼러부영사가 간첩혐의로 소련에서 추방당했다고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가 24일 보도했다.
프라우다지는 쇼러부영사가 소련인 중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정보함을 회수하려던중 붙잡혔다고 말했다.

日 지방議會選擧
保守中道 압승
市長 75명중 57명차지

【東京=聯】市長·市의원·東京特別區區長·區의원및 邑面(町·村)長·邑面의원등을 선출하는 일본의 제10차 전국통일지방선거 개표결과 25일오전현재 自民黨을 비롯한 公明黨·民社黨등 보수중도연합후보들이 혁신세력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4일 투표가 끝남과 동시 개표에 들어간 75개市의 시장당선자를 보면▲自民黨단독추천시장 3명을 포함 自民·新自由클럽·공명·민사당및 社民聯등보수중도계가 공동추천한 무소속인사가 57명 ▲혁신및 혁신중도계무소속 8명 ▲보수혁신연합8명▲중도계및 기타 각 1명등으로 자민당을 주축으로한 보수세력이 절대적인 다수를점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海外토픽

베토벤을 좋아한다
★蘇안드로포프 밝혀

소련공산당 서기장 유리·V·안드로포프는 보드카와 베토벤을 좋아하나 테니스는 치지 않는다.
안드로포프는 지난주 서독의 시사주간지 데어·슈피겔의 편집인 루돌프·아우그슈타인씨와 한시간동안 가진 회견에서 그가 그동안 재즈를 좋아한다고알려진 것과는 달리 클래식음악을 좋아하며 특히베토벤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안드로포프는 베토벤 곡들중에서 피아노·소나타인 비창을 제일 좋아한다고밝히면서 그가 보드카는마시지만 위스키는 마시지않으며, 테니스운동은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했다고말했다.
아우그슈타인씨는 안드로포프가 영어를 할줄모른다고 한때 알려졌었으나 이는 잘못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안드로포프는 영어를 알뿐아니라 독일어도 약간 알고있다고 귀띔.【AP】

폐쇄적性格 때문
★印의 털뜯는 惡癖

머리털을 비롯하여 온몸에 난털을 마구 잡아뜯는 악벽을가진 사람들은 무력감이나 폐쇄적 성격때문에 그같은 행동을 저지르는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신병학적 주의가기울여져야 한다고 인도 킹·조지의과대학의 지텐드라쿠마르·트리베디 박사가경고.【PTI】

◇教皇 찾아온 비둘기 요한·바오로2세 로마교황이 24일 로마시내한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 비둘기 한마리가 날아와 교황의 손위에 앉고있다.【로마24日AP電送=聯】

社說

北의 民族自害획책
—IPU서울總會방해 糾彈돼야

세계 최대규모의 政治人모임인 국제의회연맹(IPU)의 體統과 公信力에 대한 北韓측의 끈질긴 최근挑戰은 일단 명쾌하게 극복되는 느낌이 든다.
24일 헬싱키서 열린 IPU집행위원회는 그理事會의 개막을 앞두고 일부 北韓동조국들이 엉뚱하게 책동한「추가의제」제안을 토의한 끝에 이를 물리치고 금년 IPU총회를 서울서 개최키로한 작년9월 로마총회의결정을 존중하도록 건의키로 합의했다는것이다. 理事會는 오는 29일 이 건의를참작, 추가의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北韓측은 IPU총회의 10월 서울개최를 번복시켜보고자 수단방법 불문의 방해공작을 벌여오고있다. 지난14일에는 헬싱키駐在 北韓대사 유某가 핀란드政治人들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北韓측은 自省은 커녕 계속 蘇聯·蒙古를 비롯한 共産國들과 몇몇 아프리카國家에 기대어 집요한 방해공작을 전개중이다.
그같은 상황적 여건을 감안할수록 24일있은 IPU집행위원회 결정은 이 국제기구의 의연한 良識을 재확인케 한것으로 높이 평가되는 바이다. 25일부터 열리는 理事會 또한 98개회원국중 90개국 대표단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시한번 IPU의 세계적 권위를 늠름하게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당초 작년 총회에서 일단 결정한 사항을 北韓등 일부세력의 책동때문에 재토의하려든다는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본시 IPU의 존재의의는 세계 議會政治人들에의한 국제분쟁의 중재, 平和재건과 冷戰완화를 근본 안목으로 삼는 討論및 協議의 광장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숭고한 정신을 위배하는 적의에 가득찬「平地風波」격 방해공작에대해 무원칙한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서 IPU의 절대다수 회원국들은 작금의 논의와 관련하여 韓國의 多邊的 開放姿勢와 대조되는 北韓측의 排他的 閉鎖姿勢를 직시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는 분단된 南北韓의 外交경쟁에 대해 一喜一憂를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국제사회의 平和와 상호理解의 증진이라는 大前提위에서 原則을 중시하려할 따름이다.
다른한편 우리는 北韓측의 몰염치한 서울총회 방해공작에 드러난 外交的行態를 관찰하면서 착잡한 개탄을 금치 못하게된다. 그들의 방해책동은 民族力量의 낭비임은 두말할것도없고 韓國의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역하는까닭에 6천만 韓國人의 대다수가 염원하는 平和統一의 전망을 흐리게하는 꼴이다.
또 평양측의 최근 作態는 外交的 自害行爲나 다름없는데도 전혀自省의 빛이안보이니 오히려기이한 인상마저 금치 못하게한다. IPU의 분위기를 흐리게하고 그 公信力을 손상시킨 끝에 北韓측 자체의 국제적 이미지를「국제사회의 이단적 문제아」로 부각시키는 誤判을 서슴지않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北韓측은 헬싱키理事會에서 좌절을 겪은 뒤에도 방해공작의「제2단계」에 진입하리라는 몇가지 심상찮은 조짐을 노정시키는 형편이다. 하나 평양측이 노리는 음성적 武力도발을 통한 방해공작시도는 韓國의 드높은경각심으로하여 한낱 失敗作의 재연외에는 아무런결과도 가져오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IPU의 집단적良識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측에 의한 買收공작후의 번복이라든지 분열초래란 전혀 상정할바아니라고본다. 마바지 진통의 슬기로운 수습을 내다보면서 IPU총회의 서울개최를위한 만전의준비를 다짐할 따름이다.

未成年과 나이基準
—保社部「18세미만」規定을 보고

대구 디스코홀 화재참사를 계기로 무도유흥업소 미성년출입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 되었다. 영업마감시간을 子正까지로 제한했고 불법영업을 한 업체엔 허가취소와停業처분이내려졌다.
어제 보사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에넘겼다고 한다. 그 골자는 18세미만 미성년과 고교생 이하의 입장을 엄격히 막고, 업소주인에게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 시킨것이다. 고교생 이하의 출입규제는 교육적 측면으로나 사회통념상 일리있는 조처로서 별로 異見이 제기될 문제거리는 아닐것같다.
그보다도 여기서 관심을 끄는 점은 미성년의 나이기준을「18세미만」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 1월 이미 청소년의 여가활동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화시킬 구상을 세웠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이 개선안의 구체화임과 동시에 未成年문제를 크게 내다보는 한 전진적인 방책으로도 평가 받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의 기준연령을 내리면서 고교생 출입을 막는다는 조치는 현실적인「실효」를 거둘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선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만17세이상의 남녀는「등록증」발급대상이 되며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하는것으로 규정되어왔다. 한때 적어 18세 이상의 고교재학생이 이런 증명서를 제시할때 따로 학생신분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는 어려울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은 날로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얼핏 외관으로 나이를 판단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 판별의 책임을 업주에게만 맡겨 둔다는것은, 아무래도 또다른 제도상의 盲點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을 지울수 없게한다.
그에 보태 같은 연령층의 권익에 대해 차별 인상을 주거나 법의 衡平원칙에 어긋나는듯한 모순도 생각하면 가볍게 제쳐 둘수 없는 대목이다. 이 문제에 관한 관계당국의 상호보완적인 대책이 아쉬운 시점에 왔다.
지금의 우리 法制로는「미성년의 개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民法 4조의 성년기 조항엔「만20세로 성년이 된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日帝때부터 적용된 획일적 관례며 표준이다. 미성년자보호법엔 나이 규정이 따로 없고 소년법은「20세미만」에 해당한다. 그런가하면 병역의무와 공무원자격은 18세부터 시작된다. 취업은 14세부터 가능하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일관성이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미성년」에 대한 확실한 연령기준 확립이 시급하게 되었다.
놀라운 문물의 발전에따라 자라는 세대가 빠른 성장을 할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 능력의 차이도 다르다. 법과 제도는 이 변화추세에 적절히 대응해야 그 인간사회발전의 실효를 높일수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개발과 전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의무의 테두리만 정해 놓을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권리행사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넓혀줘야 할것이다.
청소년선도의 시야를 좀더 넓고 멀게 두고, 미성년의 정의를 현실에 맞춰서 정립하며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공통적이고 세계의 진화추세와 어울리는 基準을 찾으며 彈力性있는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이미 우리는 18세未成年制의 연구검토를 주장한바 있다. 오늘 역시 그에 변함이 없다.

政局往來

行政문제질의 쏟아져

12명의 與野 의원이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인 25일 하오의 국회 내무위에서 柳寬範의원(民韓)은『모든길이 로마로 통한다는말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새마을路, 올림픽路로 모든 정부시책이 줄달음치고 있다』며 올림픽에대비한 地自制 실시의필요성을 역설. 또 曺德鉉의원(국민)은 우리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한뒤 혐의가없는것이 밝혀지면「구타당했다는 소리를 밖에서 결코 發說하지 않겠다」는 각서를받고 放免하는일이 많다』고주장. 이날 李在奐·林芳鉉의원등 民正黨의원들은 행정일반에대한 질의로 시종한데반해 民韓黨의 李英駿의원은 18개항에걸친 질의를하면서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제기, 눈길을 모으기도.
답변에나선盧泰愚장관은地自制문제와폭행치사사건에대한질의등을 미리막기위해서인지 항목별답변에 앞서『앞으로 의원여러분의 탁월한 의견이 모두 반영되고 추호의 차질이없도록 노력하겠다』며『地自制와 고문치사문제는 수차 답변드렸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도면 무슨뜻인지…

25일하오 외무부를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진행된 국회外務委에서 첫질의에 나선 許景九의원(民韓)은『뉴욕·타임즈紙의 改憲說보도에대해 외무부가 駐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항의한 것이 사실인가. 앞으로 만의 하나 어느시점에 改憲이 될 경우 뉴욕·타임즈에 사과라도 하겠단말이냐』고 추궁.
이어 李慶淑의원(民正)은 개정旅券法의「30세미만 未婚여성에 대한 철저한심사규정」에 대해『30세미만의 미혼여성이 무슨큰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고 따졌고, 林德圭의원(국민)은『외무부직원의 陸士入所가 정신교육이라고 했는데 장관이 어떤 감명을 받았기에 입소를 권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李範錫외무장관은『지난번 말레이지아國王을 수행해서 陸士생들의 생활태도를 보고 감명을 받아 직원들과 감명을 共有키위해 주선했다』고 말하고「30세미만 미혼여성 철저심사규정」에 대해『일본지역에만 국한된다. 이정도면 무슨뜻인지 알지 않느냐』고 반問, 웃음이 일기도.

「구타당한 사실 發說 않겠다」覺書받고 放免하는일 많다

小委解散제의 兩面用

民韓黨이 25일 국회運營委의국회법개정안 심사小委활동에 不參선언과 小委해산을 電擊的으로 제의한것은「제자리걸음의 小委활동」에 쐐기와함께對與정치절충을 試圖하려는 兩面作戰인듯.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7차 국회법개정안 심사小委에서 朴寬用 金永俊의원등民韓黨측 위원들은『더 이상의小委활동은 무의미하며 새로운 정치적결단에 의한 轉機가 필요하다』며 小委의 해산을 奇襲제의.
이에 沈明輔小委위원장(民正)은『黨에 오늘의 상황을보고하고 그동안의小委활동결산보고서를제출할것인지의여부를협의해보겠다』면서1시간만에회의를끝냈다.
이어 열린 運營委 전체 회의에서 朴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국회법 小委의해산을 요구했다는 가슴아픈보고를 하지않을수없다』면서 小委 해산요구의 취지를 거듭설명하자 李鍾贊위원장은『정치적 절충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는 각黨교섭단체간사들이논의를 거쳐 결정할문제』라면서小委해산요구를잠정留保키로결정.
한편 국립의료원에 입원중인林鍾基 民韓총무는 이날아침 잠시국회에나와『더 이상 국회법 개정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수 없기때문에 새로운방향을 모색하는 轉機를 마련키위해 小委해산을 요구한다』는내용의 聲明文을 발표.

「무조건그만두라」곤란

金鍾哲국민당총재는 25일 民韓黨이낸 내무·문교장관解任 권고결의안에대해『사건과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있는데 합리적으로 再發을 막고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조건 그만두라는 식은 곤란하다』면서『야당이 서로 의논도 없이 보리베러가자 고만하면 되는가』고 反問.
金총재는 이날상오 오랜만에당사에나온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또 국회법개정문제에 언급,『국회常委에서 예산심의권을 없앤것은 마치 팔 하나를 떼어놓고 한팔만 갖고 놀라는격』이라고 비유하면서 국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그는 최근의 改憲說에대해『정부측의 태도표명은 잘한것으로본다』면서『헌법은 성실히 지켜나가는게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
金총재는 화제가 地自制등 政治懸案처리문제에 미치자『지난 2년간 우리도 정부 여당을 봐준만큼 그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말하기도.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채 준 성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불꽃놀이(FIRE WORK)
SPECIAL 40% OFF
VICTORIA DAY(5월23일 월요일)를 대비하여 가장 다양한 FIRE WORK을 대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단, CASH & CARRY인 경우 5% 더 감해 드립니다.)
편리를 도모코져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VICTORIA DAY에도 영업합니다.
5월15일(일) 8AM~2PM
5월21일(토) 8AM~1PM
5월22일(일) 8AM~2PM
5월23일 (VICTORIA DAY) 8AM~3PM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도매상
FALLIS
스페샬기간
5월14일〈토〉까지
▲각종 Sunpac Juice 24 x 10온스 $7.99
▲Heinz Tomato Juice 24 x 10온스 $6.65
▲Allen's Apple Juice 24 x 10온스 $7.25
▲Y & S Licorice Twizzers 60 x 5센트 $1.65
151 Belfield Rd.
(마틴그로브×401 부근)
☎ : 249-8411

"「交叉승인」得失 밝혀라"

—國會 常任委 질문·답변

警察강압수사 是正노력 (답변)

在日동포教育 異常없나 (질문)

国会 録音

外務委

▲許景九의원(民韓) 질의‖국제 의회 연맹(IPU),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등의 유치는 우리 國力과 국제적 지위향상의 긍정적인면도 있으나 北傀가 이를저지하려는 反작용에 우리의 모든 국력이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일련의 이런 행사유치가 北傀의 침략적야욕에 명분을 주게될 우려는 없는가.

南北韓交叉승인에 대한 우리의 개념정립이 명확치 않다. 交叉승인의 實相은 무엇이며 예컨대 1對1또는 10對10의 상호승인을의미한다면 한국이 中蘇와의 관계개선을 크게 내세우고 있는 처지에 미국의 對北傀관계개선을 어떤논리로 반대할수 있을 것인가.

▲李慶淑의원(民正)‖南北韓교차승인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거론되고있다고 하지만 신중성이 결여되고 무책임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상이 짙다.

美·日·中·蘇4대强國이 南北韓을 상호승인할경우 국제법상 어떤문제점이 야기될지 연구한적이 있는가. 아울러 교차승인의 경우 우리국익에 어떤 得失이 있겠는지 밝혀달라.

비동맹외교와 동맹외교, 南方외교와 北方외교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지를 밝혀라.

▲林德圭의원(국민)‖IPU서울총회를 앞두고 北韓대표를 초청키 위해 南北韓 의원외교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민족보존방법은 언어교육이 중요한데 朝總聯系2세들은 거의 조총련계학교에 보내는데 비해 民團계통은 약84%가 일본학교를 다니고 있다는데 在日동포의 언어교육에는 이상이 없는가.

▲李榮一의원(民正)‖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겨도 得이 없고 저도 손실이 없는것이 非同盟외교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외교에매달려야하는가.

▲朴源卓의원(民正)‖6·23선언이후 10년이지났는데 그동안 외무부가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거둔 실적은 무엇인가.

일본 천황의 訪美로 美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는네 우리는 일본천황을 초청할 용의는 없는가.

▲李範錫외무장관답변‖駐뉴욕 총영사관이 뉴욕타임즈에 改憲說보도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없고 일상업무의 하나인 언론계인사들과 만난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헨리·스톡스 뉴욕 타임즈 東京지국장이 런던 타임즈로 옮겨간것은 이 보도와는 무관하며 이 보도이전에 옮기기로 예정된것으로 알고있다.

국제의회연맹(IPU)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유치가 우리安保에 부정적인영향을 끼칠수있다는 지적을 잘받아들여 만반의 외교적인 대응책을 펴나가겠다.

북괴의 IPU총회 개최장소변경工作이 치열하지만 결코 번복될수는없다.

오늘아침 駐핀란드 대사관으로부터 IPU 집행위가 7대2로 개최지문제를 거론치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南北韓交叉 승인문제는 美·日·中·蘇등 4대强國이 영향력은 발휘할수있겠지만 우리가 주인이기때문에 절대강요당할수는 없다.

통일문제엔 우리가 主體가 되어야하고 교차승인문제에도 우리가 주체가돼야한다.

일본天皇의 訪韓초청문제는 즉석에서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외교적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계각층과 협의를 거쳐 보고하겠다.

외무부를 德壽宮으로 移轉하는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이 적합치못해 종합청사로 옮기기로했다.

內務委

▲柳寅範의원(民韓) 질의‖경찰수사에 있어서 미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보장할수없을만큼 公權力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폭행치사에까지 이르렀음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한계점에 도달했기때문 아닌가. 장관은 마땅히 정치적책임을 지고 고문을 발본색원하는 의지를 보여야하지 않는가.

▲曺德鉉의원(국민)‖폭행치사한 韓一合纖 金根祖이사의 동서인 현직외과병원장 김오경씨는 剖檢시 金이사의 손등과 손가락사이가 시커멓게 변색돼있다고 주장했다는 발표외에 또다른 고문사실에대한 강한의혹이 있다.

趙世衡사건과 관련, 모든 수사에서 공개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李在奭의원(民正)‖현행 紹介영업제도를 바꿔 6대도시에 자격제를 도입하는 허가제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내용은. 이자격제 도입으로인한 老年層의 失業사태에대한 대책은.

1천3백여종의 민원업무가운데는 認·許可사무를 대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않는가.

▲金泰洙의원(民韓)‖金根祖씨사건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의 공포를 주고있는 경찰像에대한 대처 방안은. 趙世衡사건이던진 파문은 매우 심각한데 국민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고 처방을 내릴 용의는.

시위학생에게는 가혹한 처벌보다 사랑으로 감싸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실현할수있는 획기적방안은 무엇인가.

▲金容大의원(民正)‖甲類農地稅의 免稅點은 1백17만원으로서 82년 秋穀인상분만큼 면세점을 금년에는 당연히 올려야하지않는가.

乙類농지세는 경제작물로써 농민들이 수확량에대해 자진신고로 정해지는것으로 신고치않는경우가 많아 임의로 세금을징하고있는데 是正할 용의는.

地方道는 國道에비해 포장률이 10%에 불과하다. 世銀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경기부양사업을 펼칠용의는 없는가.

▲李英駿의원(民韓)‖재산세중 空閑地稅의 異議신청건수와 액수는 얼마며 반환시 문제점은무엇인가.

幸州大橋로부터 임진강을 잇는 漢江하류와 臨津江邊의 도로설비로 제방을 쌓아 작전도로,간첩침투방지등 안보와 농경지확충, 철새보호, 88올림픽관광도로로서 南北통일의 의지를 表現하고 임진강의 기적을 낳을수 있다고 본는데.

趙世衡사건과 관련,경제각료의 도난품과 價額은얼마인가.

▲林芳鉉의원(民正)‖市道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개선방안은. 각계각층에 職能人을 흡수, 지방자치단체의 代行으로 지방자치실시전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본는데 어떠한가.

土地電算化계획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83년도 지방사업의 早期發注상황은 어떤가.

큰도둑뿐아니라 서민의 물건을 훔친 작은도둑체포에도 경찰력을 투입하라.

▲盧泰愚내무장관답변‖앞으로 경찰수사에있어 합리적수사방법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强壓수사로 여러가지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장관으로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제실시 여건조성과 관련된 제도전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때문에 언제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는어렵다.

부동산소개영업제도를 개선하기위해 6大도시에 대한 소개영업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대부분의 세금이 國稅위주로돼있는게 사실이다.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移讓방안이 검토돼야 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워 당분간 이양이 곤란하다. 그러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될수있도록 관계부처와 강력히 협의중이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사용토록 직무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다. 미성년자의 유흥업소출입제한은 18세미만으로 알고 있다.

78년 2월부터 자연보호기본법제정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나 이기본법의 골격이 보호구역제정、稀貴動·植物 규정과중복되는점이많아 계속 연구중에 있다. 앞으로 강력법과 人質犯을 설득시킬 설득전담반구성을 검토하겠으며, 공개수사는 과감히 확대발전시키겠다. 유흥업소가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假처분신청을내 계속영업을하는경우가 있는데 앞으로실질적인 단속이 실시되도록하겠다.

작년 한햇동안 서민들위한 지방세減免額은 모두1천2백3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도 감면조치를 계속확대하겠다. 또 認許可등 민원업무의 下部위임과 규제완화를 계속추진하겠다.

法司委

▲羅吉祚의원(民正) 질의‖市道등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와 대통령令이 母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난일이있는데 이경우 법제처는 어떤조치를 취하는가. 법무부가 행정소송절차법을 개정하기위해 위원회까지 구성한것으로 전해지고있는데 법제처와 어떤협의를 했는가.

▲高泳耉의원(民韓)‖정부가 행정立法 豫告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실시않는이유는. 법제처가 추진중인 法令제도개선작업에 소위 改革입법도 포함돼 있는가.

▲朴炳一의원(民韓)‖벌금을 과태료화하고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행정절차化하겠다는것은 非민주적인發想이 아닌가.국민재산권에 부담을주는것을어떻게행정부처에서 처리할수있나.

▲金永俊의원(民韓)‖지방자치단체의 條例도 3개월이하의 體刑을 가할수있는등 법률과 마찬가지의효과가 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條例는 법령정비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않는가. 시중에 改憲說이 나돌고있는데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헌법연구와 有關한 것인가 無關한 것인가.

▲李龍熙의원(民正)‖토지의 公概念도입에 관해요즘 상당히 논의가 되고있고 그 可否에 대해 贊反의 논란이 있다.

▲李亮雨의원(民正)‖법제처는 법시행에 한등의 지휘감독권도 갖지않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용의는.

〈25일하오 국회 國防委에서 黃永時 육군참모총장이 육군現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메아리

名舞

金聖佑【編輯委員】

국립극장의 제1회 名舞展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열렸다. 日刊스포츠가 82년1월부터 전국에 숨어있는 춤의 名人들을 발굴하여 시리즈로 연재해오고있는 것을 국립극장이 하나씩 실무대에 옮기기로하여 그 첫번째 막을 연 것이다. 국립극장에서는 매월 마지막 토·일요일에 名舞展을계속개최하고 연말에는 그동안의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다 나오는 名舞온·퍼레이드의 대무대를 꾸밀예정이라고 한다.

名舞展은 작년에 이어 지난3월에도 서울시립무용단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적이 있었다. 이역시 日刊스포츠가 찾아낸 名舞家들을 관객들에게 대면시켜준 것이었다.

근래에 우리주위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名舞들이 이렇게 대거 어깨를덩실대기 시작한것은 생각하면 참 신나는 일이다. 덩달아 절로 몸이 흥겨워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춤뿐아니라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높아졌다. 특히 젊은 학생들과 주부들이 우리것에 눈을 크게뜨게된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국립극장과 지난번 시민회관의 名舞展역시 관객중에는 학생과 주부가 많았다. 국립극장의 소극장은 물론 세종문화회관의 대강당이 우리춤의 구경꾼으로 빽빽이 만원이 된것은 뜻밖이었다. 이 관객들의 호응이 또 예사구경과는 다르다. 名人들의 춤 마디마디에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고 간드러진 추임새로 흥을 돋구어준다. 객석이 그대로 마당이다. 어떤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흥을 주체못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납실댄다. 이렇게 무대가 온객석을 들썩거리게 하는 민족예술이 딴 나라에 어디 흔하던가. 세종문화회관에서의 名舞展때는 공연을끝낸뒤 출연한 춤꾼들이 무르익은 신명을 幕 내렸다고 그냥 식혀버리지못해 무대뒤에서 한바탕 새로 판을 벌인것이 그야말로 名舞였다.

우리 춤에는 이런 흥이 있고 신명이 있다. 그 흥은 찰랑거리되 넘치지 않는다. 가득차되 터지지 않는다. 속에서 용솟음 치면서도 치솟음을 모른다. 때로는 춤을 추는듯 안추는듯 온몸이 안으로 안으로 逆流한다. 흥이 뭉치가 되어 마디마디 매듭을 지었다가 제물에 도로 풀렸다가 한다. 커다란 파도지만 기슭의 바위에 닿아 부서지지 않고 大海속에 潛沒한다. 우리 춤에는 이런 멋이 있다.「얼씨구」라는 말은 가장 소담스러운 우리의民族語다. 외국어가 어떻게도 흉내낼수 없는 이 말에서 우리 춤의 精髓를 본다.

이런 우리의 古典춤이 한갓 무대위의 민속예술로만 그 존재의미가 그칠 것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의 名舞展을 보고 건축가 金重業씨가 적은 소감은 들어볼만하다.

『오늘 자질구레한 일들에 몰려 이웃과의 정이나 벗과의 이야기들이 단절된채 응어리진 불만속에 뒤엉킨 일상이 환멸속으로 치닫고 있는나날이다. 참말로 뿌듯한 갈등이 아쉽다. 우리민족은 멋들어진 백성들이었는데 이렇게도 이지러지고 메말라져버렸다는 것이 도시 한스럽기만 하다. 축제가 일상화될수있는 터전 마련이 절실하지 않은가. 삶의 즐거움을 주변에 뿌리깊게 심는 작업이 절실하지 않는가. 덩실 어깨춤이 절로나오고 입가에는 환한 웃음을 되찾고 건전한 삶을 되새겨 밝은 내일을 설계해보자. 이같은 韓國人의 멋을 나는 名舞展에서 보았다』

우리는 참 멋있는 백성이었다. 名舞들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정말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멋있는 백성이라고 자랑할수있을까.

걸핏하면 넘쳐버릴것같고 자칫하면 터져버릴것 같고, 치솟기만 했지 속으로 갈앉을줄 모르는 사람들. 빡빡하기만하여 여유가 없는 사람들.그래서 덩실덩실 함께춤 커다란 춤판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나는 일 없는 사람들은 춤구경 가자. 보는 일마다 화가 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사람들은 춤구경 가자. 춤속에는 신명있고 멋있던 우리겨레의 實體가 있다. 그 춤은 민족의 모럴이다. 그리고 춤판은 大和合의 場이다. 名舞는 우리겨레의 본얼굴을 보여주기위해 무대에 오른다.

記者의 눈

落第 한국마라톤

최근 10여년간 중병을 앓고있는 한국 마라톤은 치유의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24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金泰坤이 2시간18분20초로 5위를 차지한것은 한국마라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중환자에게 고단위 처방을 내린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마라톤에는 중환자를 치유할만한 名醫도 처방도없는 한심한 현실이다.

지난3월 열린 東亞마라톤서 蔡洪洛(건국대)이 2시간16분33초로 한국기록에 접근했지만, 최근의 한국마라톤은 기대를 걸만한 신인도,마라톤을 중흥시킬수있는 뛰어난 지도자도없이 방황을 계속하고 있다.

마라톤을 중흥시켜야 한다는 과제는 육상인은 물론 온국민이 바라는 희망이지만 10여년간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록 단축만 기대하는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 부재,상식을 벗어난 대회개최가 우선문제다. 시즌 첫대회는 3월에 열리는 東亞마라톤. 그 한달뒤에 서울국제마라톤이 열렸다. 10월에 전국체전마라톤이 열리고 한달뒤에 또朝日마라톤이 거행된다. 1개월간격으로 대회를 개최하는것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것이다.

마라토너가 풀·코스를 달린후 회복하려면 2~3개월이 걸린다. 피로가 회복되기전에 대회를 개최, 기록경신을 기대하는것은 한말로 과욕이다.

우리나라의 마라토너는 줄잡아 60~70명. 이같이 빈곤한 선수층으로 외국수준을 따라 잡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몇년전 마라톤후원회가 생겼고,한국기록경신선수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내걸었으나 한국기록은 무너지지 않고있다.

서울국제마라톤은 우선 기록경신의 산실이아니라 저변확대를 이룩하고 우수신인을 발굴하여 깊은잠에서 깨어날수있는 기폭제 구실을 한다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우수한 선수가 나타나려면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마라톤 코스에대해 대부분 외국선수들은「평범한 코스였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컨디션이 기록경신에 큰영향을 미치지만 다리를 여섯번 건너고 강바람을 안고뛰는 핸디캡 정도였다.

72년 뮌헨·올림픽서는 30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치에르핀스키가 2시간9분55초로 우승했다. 마라톤서 외적인 핸디캡을 따지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閔炳宅체육부기자】

히틀러전쟁日記入手에 20億원 들었다

슈테른誌 2년半 추적끝에

스탈린과 챔벌린 首相등 존경

消化不良·불면증 시달린 흔적

◇「히틀러의 일기、발견되다」란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진 西獨시사주간지 슈테른의 최신호 표지.【함부르크24日AP電=聯合】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6백만에달하는 유태인을 무참히 학살하는등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할수있는가를 근세사에 기록한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그가 권력을 잡기전인 1932년부터 죽기 열흘전인 45년4월16일까지 직접 썼다는 일기가 공개되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일기에 의하면 히틀러는 평화협상을통해 전세계를 영국과 兩分할목적으로 41년 영국군의 덩커크 철수작전을 방해하지말라고 명령했으며 당시 적국지도자였던 스탈린과 체임벌린 영국수상을 존경했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있다.

한권이 50~1백페이지인 히틀러의 일기는 모두 60권으로 동독領드레스덴부근 뵈르너스도르프 마을의 마굿간 짚더미속에 묻혀있는것을 서독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슈테른誌 게르트·하이데만기자 (51) 가 2년반넘은 추적끝에 입수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영국의 더·타임즈는 슈테른誌와 독점게재계약을 체결하고 24일자 선데이·타임즈에「히틀러의 전쟁비밀」이란 제목아래 1면의 반이상을 할애、히틀러비밀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슈테른誌가 일기입수를 위해 들인 비용은 약 6백만마르크 (한화약20억원) 이고 더·타임즈가 슈테른誌에 지불한 독점계약료는 50만파운드(한화약5억6천만원) 에서 2백만파운드 (한화약22억원) 사이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일기에 의하면 히틀러는 자신의 측근참모들에대해 경멸어린 혹평을 가하고 있으며 나치독일 군장성들이 계급·훈장·부귀에 눈이멀어 명령에 복종치 않고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군부의개편을 원한것으로 돼있다.

그는 나치친위대 (SS) 대장이며 비밀경찰 게슈타포 두목이었던 하인리히·힘러를『위선적이고 속셈을 알수없는 하잘것없는 노랭이이고 권력에 미친 거짓말장이이자 가축사육사같은 녀석』이라 평했고 선전상이었던 괴벨스를『여자와 시시덕거리기만 즐기는 난봉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자신의 情婦였던 에바·브라운만은 끔찍이 생각했던것같다.

히틀러는『에바가 진정으로 자신을 원하고있으나 너무바빠 혼자있게 내버려두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에바는 이해심이많고 젊으니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고 일기에 쓰고있다.

그는 또 38년2차세계대전의 가장 직접적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뮌헨조약체결에 언급、『영국수상 체임벌린은 교활한 여우였고 나보다 한수 높았다. 이탈리아의 못솔리니나 프랑스의 달라디에는 나에게 맞설용기조차 없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못솔리니는 내가 임명한 로마주재 독일영사쯤되는 수인배들』라고 4者會談에 참석한인물들을 평했다.

또 44년 미수로 끝난 자신의 암살기도에 대해서는『참으로 가소롭고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풋나기들은 내각명단까지 꾸며 놓았으나 내각명단은 온통 전달들뿐이다. 그러나 폭탄의 위치가조금만 달랐더라도 그결과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라고 적고있다.

또 이일기는 히틀러가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히틀러의 일기는 그가 죽기 열흘전인 45년 4월16일로 끝난다.『오랫동안 예상되던 연합군의 공세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가호가독일에 있기를…』로 끝을맺고있다.

히틀러는 일기를 쓰게된 동기가『후세의 모든 정치가들에게 나의 정치사상과 행동을 알리기위해 모든것을 솔직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일기속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히틀러의 일기가 공개되기시작하자일기의 眞僞를 둘러싼논쟁이 뜨겁게가열되어가고있다.

일기를 입수한 슈테른誌측과 이를 독점연재하기 시작한 더·타임즈紙측은 히틀러 전문연구가가 내용감정과 필적감정을 한결과 이 일기가 진품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2차대전 역사가 대폭 수정될수 있을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서독에서는 이일기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있다.

또 히틀러는 말년에수전증 증세로 글씨를 쓸수없었으며 일기를 쓸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주장도있다.

일각에서는 히틀러 일기가 지니는 엄청난 史料性과 정치적 의의에비춰 眞僞여부를 가리기위해 美·英·佛·獨·유태인으로 구성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마저나오고 있다.

【파리=安炳燦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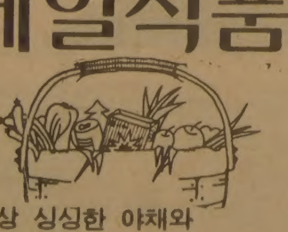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CHINA HOUSE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의 英才교육…現況과 문제점은

키우는 天才와…

「科學교육元年」 첫발은 디뎠지만

器資材·교사資質 부족 入試치중…實驗은 뒷전

과학교육이 낡은 태를벗고 조용히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일선학교교실은 벌써 과학과목의 교육방법을 종전과 달리하고있으며,과학영재에대한 조기교육론이 활발하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과학교육 元年」이라 칭함은 그같은 이유에서다.

정부의 과학기술교육확충에 관한 종합대책이 나온것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그리고 그같은 방안이 일선교육현장에파급돼, 미진하나마 눈으로 보여진 것은 금년3월 신학기가 시작되고부터였다.

현대과학의 산물로 상징되는 컴퓨터는 우리생활에 바짝 다가와있다. 직장의 월급봉투가 컴퓨터로 찍혀지고, 전자오락실의 우주전쟁,구멍가게의 전자계산기조차도 컴퓨터의 영향하에 있다. 그럼에도 교육으로서의 과학은 실생활과 괴리되어 동떨어진 궤적을 그려왔다. 우주전쟁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은 그것이 왜 손끝의 몸짓임에따라 전자총을 발사하고 파괴되는가를 모른다. 왜 그런 동작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려조차 들지 않는다. 교육탓이다.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은 천체망원경으로 우주의 신비를 관찰하고, 개구리를 해부하여 조건반사를 실험한것을 전부로 알았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같은 실험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과학에 대한 사회의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과학이 얼마나 푸대접 받아왔는가를 한가지예로 돈다. 해마다 실시되는 대학입시에서 학력고사 고득점자들은 예외없이 인문·사회계열을 지망해 왔다. 지난 82년 문교부가 조사해본 결과 고득점자의 98%는 법대 등 인문·사회계(의예과 포함)를 택했다. 나머지 2% 만이 기초과학 분야를 택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부터 각급학교 교실은 하루하루눈에 띄게 달라져가고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대기 시작한 것은 학습방법의개선이었다. 이론중심에서 탐구학습 중심으로 바꾸기위해 유휴교실이 실험실로 개조되고,플라스코 등 실험기구가 하나씩 하나씩 마련되었다.

최근 경기도 일원의 각급 학교를돌아본 관계자들은 교육현장에 비로소 과학이살아 숨쉬고 있음을 눈으로 실증했다. 그들이 경기始興郡 果川에있는 관양중학교의 한 과학실험실을 방문했을때 흰가운을 입은 중학생들은 액체와 기체의 분리에 대해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어린 중학생들은 교과서대로 알콜램프에 불붙켜고,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기체가 뽀글뽀글 플라스코관을 따라나올때 신기한듯 탐구의 눈을 반짝였다.

그같은 생동감있는 과학교육은 安養의 국민학교, 仁川의 남녀고등학교에서도 목격할수있었다. 비록 실험기재는충분치못했어도 학생들의 과학에대한 탐구적學習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과학교육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할 장벽은 크게 3가지로 볼수있다. 과학을 기피하거나 소홀히하는 사회적분위기, 교육 여건의 미비, 교재와교사의 자질부족등이다.

동양적사고에서 과학은 학문으로서의 매력이 적게마련이다. 비교적 다른과목에 비해 난해하고 까다로운 실험을 동반해야한다. 게다가 우리의 교육이 대학입시중심으로흘러 배점은 적고,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과학은 자연히 관심이 적어지게된다. 실제 인문계 선택과목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중 택일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입시 응시자들은 생물과목을 택한다. (평균 78%)

또한과학두뇌가 사회로 진출할수있는 길이 거의없다. 과학에 대한 전통적인 경시현상까지 남아있어 어린시절부터 과학과목을 꺼려하게된다.

더욱 더 문제가 됐던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여건미비였다. 그 단적인 예는 과학교육의 기본 틀이라 할수있는 실험실과 과학기재의 부족현상이다. 문교부 집계로는 전국 초·중등의 실험실확보율은 51.8%, 교육기자재는 58.8%로 둘다 절반을 약간 웃도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전의 과학교육이「말교육」이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것이다.

한편 교사의자질부족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큰 흠이다. 지금의 양성제도로는 훌륭한 교사를 배출할수가 없게되어있다. 교직과정 이수자, 검정고시및 재임용교사의 실험지도 능력이 부족하고, 사범계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의 신임교사 수준이 각대학마다 최하위수준을맴돌고있는 형편이다. 과학전문교사의재교육기회도 부족한실정이다.

오늘의과학은 시시각각 달라져 과학교사의 끊임없는자기연마가 이뤄져야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뒤늦게나마 우리의과학교육을 바로잡기위해 이상과같은 세가지문제의해결에 온힘을쏟고있다. 흔히 정책자체는 그럴사하게설정돼있어도 그것이 눈으로나타나는 일선현장에서는 흐지부지되고마는것이상례이다. 행정의 경직성 탓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과학교육개선방안만큼은 일선교육현장 구석구석까지 그같은 의지가 잘전달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나 국민모두가 그동안 과학교육이 너무등한시됐다는 자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활발한 쟁점으로 등장한 과학영재교육론은 많은사람의관심을 받고있다.

정부와 학부모는 그나름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각각찬반의주장을 펴고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교부와 과기처가 영재교육에대한 태도를 달리한다.

문교부는 현재 水原에 한개의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내년에 6개교,내후년에 6개교등 각시도에 1개교씩 설립운영키로 하고있으나 全人교육의 틀을 벗지않으려하고있다. 교육과정을 앞당기거나 학문의 조기섭취를 목적으로 하지않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기처의 영재교육은 조기및 가속교육으로「20대박사」를 양성한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과학영재교육」의 가장큰 목적은 과학영재의 싹을 조기에 발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시켜 빠른시일안에 전공학문의 효율을 높이자는데 있다.

그의 부연설명에 의하면『영재교육문화가 이루어진 미국·일본·소련등 선진국에서처럼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 별도 속진교육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재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꽉 짜여진 교육제도의 선을 넘을수 없어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꽃을 피울수 없다는 것이다.

학문과 산업이 연계되는 기간을 보통 1백년으로 믿어왔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기모터 방직기계가 그런 전철을 밟았다. 현대과학은 그런 전철을 깨뜨린다. 연구소와 실험실을 빠져나온 이론과 학문은 곧바로 산업과 연결이 된다. 컴퓨터와 유전자공학을 주축으로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 그 좋은예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곧 산업이다. 과학은 국력과 직결되고 나라의 부를 좌우한다. 건설,조선,중화학공업등도좋지만 그같은 분야는 아무리 잘해도 二流國의 틀을 벗기가 힘들다. 남의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않는다.

기초과학을 튼튼히 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학문에 발맞춰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중학교와 국민학교에까지 컴퓨터를 보급하고, 새롭고, 과학교육을위해 교과서를 개편한다는것은 비록 늦었지만 아주잘하는 일이다.

과학교육에서만은 지나간일을 잊어서 탓할면 유가없다.

【李鍾九·金周彦기자】

◇정부가 실험교육의 강화등 과학교육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은 20대박사를 탄생시킬 과학영재교육을 주장하고있다.

「20代博士만이 전부 아니다」

教育은 過程…「目標」보다 연구풍토가 먼저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20代 博士를 양성하겠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이를위한 과학영재교육과정을 科學技術院(KAIST)에 설치한다는것을 크게 소개하고 있다.

科學史를 훑어보면 많은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젊은 나이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어 과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20대가 아니라 10대에 이미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겨놓고 요절한 대수학자도 있었으며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20세기의 숱한 물리학자가 평생의 업적을 대부분 20대에 이룩했던 사실들은 그좋은 실례라 할것이다.

창작력이 강하고 감수성이 뛰어날때에 깊고 오묘한이론을 청연하게 해독하여 남이 깨닫지못한 사실을추리하고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것은 이미과거에도 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수있는 충분히납득이 가는 얘기라생각된다.

이들이모두 博士는 아니라해도 英才인것만은 분명하며 사회에대한 기여도나 개인적인 섬취도에 있어서도 이들은 博士에 버금간다 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이상할 정도로『博士』에 대한 대우가높다.

이러한 博士에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인지 이번에 발표한 科學英才教育案은20대 박사라는 학위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교육은 하나의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博士학위를 받는다고 교육이 끝나는것도아니고 博士가 있어야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나 사업을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代에 큰 업적을 이룩한 과학자가 있듯이 30代에 훌륭한업적을 성취한 과학자도 많고 40代, 50代 심지어 60代에 이르러서도 빛나는 성과를 발휘하여 학문을 대성시킨 학자들을 숱하게 찾아 볼수가있다. 학문을 한다거나 연구를한다는것이 博士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博士가 아닌 과학기술학도들이 싱싱한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있는 풍토의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現교육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20대박사를 배출할 수있고 (인간교육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英才교육을 실시할수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박사를 만든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좋은 업적을 낼수있고 계속 창조적인 일을 할수있는 연구분위기와 학원의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산업계의 의욕을 유지토록함이 더욱 중요함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년전 필자가 20대 박사로서 아인슈타인이 在職하였던 프린스턴 高等研究所를 드나들때가 기억난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세계각국의 젊은 頭學들이 누구의 명령없이 다만 학문에대한 애착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는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에는 年齡도 칭호도 없었을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자리를 이어받은분은 일찍기 博士課程에서 탈락한 경험을 가진 이른바「非英才」였다는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한다.

鄭根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물리학박사>

才能 早期개발은 時代的요구

세계적 추세… 우리實情맞는 方案 강구해야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과도 같이 天才는 일찍부터 그능력을 과시할 때가 많다. 볼프강·모차르트는 5살 때 이미 미뉴에트(3박자의 느린 무용을 위한 曲)의 하나를 작곡했고 三大바둑타이틀을 포함한 日本의 六大바둑타이틀을 석권하여 日本棋界를 천하통일한 趙治勳9段도 일찍부터 그능력이 발휘되어 6세때는 바둑初段(韓國)으로 有名棋士가되어 日本으로 건너가 바둑修業을 할 정도였다.

노벨物理學賞에 빛나는 와인버그박사나 글래쇼 박사(1979年)도 미국 뉴욕市에있는「브롱크스 科學高等學校」의 천재아였고, 나폴레옹 시대에 내무장관까지 했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물리학자였던 라플라스는 16세때 카앙대학에들어가 18세때는 이미 너무도 유명한 數學者가되어 파리의 에콜 밀리테르의 數學教授로 임명이 되었다.

어느나라나 천재나 수재를 키우기위한 천재학교시스템은 반드시있다. 미국에는 수많은 天才高等學校와 數많은 특수대학이 있다. 예컨대「쿠퍼 유니온」이라는 묘한 이름의 대학은 미국 각지에서 최우수 고교졸업생들모아 全額奬學制度下에 天才科學者들을 키우고있고 프랑스의「에콜 노르말르」나「에콜 폴리테크니크」는 天才들이 모이는대학으로유명하다. 영국의옥스퍼드나케임브리지대학도마찬가지다. 아이저크·뉴튼이래 P·A·M·디래크(1933年度 노벨物理賞受賞)에이르기까지 數많은유능한 天才과학자를길러낸 케임브리지대학의 트리니티 大學도 유명하다.

교육의 기회균등 속에서도 天才학교는 세계 어디서나 그 나라마다의 특성에 알맞게 발전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희망하면 본인의 노력여하로 어느학교에나 진학할수 있다는 뜻이지 天才學校를 부인하는것은 아니다. 경쟁속에서 이겨낸者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것은 適者生存의 대원칙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재능있는자를 골라 그 재능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가 科學高等學校를 各道마다 세우고 또 韓國科學技術院에는 初中高에서 대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의 全教育課程을통해 천재과학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에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단지 이 구상과 이 계획의 실천에는 대단한 준비와 인내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세계각국의 천재교육기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다듬어졌다는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또 다대한 제원의 뒷받침도 각오해야된다. 천재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부단히 접촉하여 회화나 토론을 통한 教育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고, 학생개개인의 특별한 재능을 일찍기 발견해서 그 재능에 알맞게 개인지도를 해야만 성공을 거둘수 있다 한다. 천재교육기관의 설립에 와서 이와같은 준비와 결심없이는 천재교육은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부언해두고 싶다.

金貞欽 <高麗大교수·물리학>

설탕·포도당 消費많은 英·佛·에이레등이 死亡率 가장 높아

英 실리교수팀 研究

糖分소비량과 乳癌은정비례

당분이 많이함유된 음식이 유암을 촉진시킬지 모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大의 스티븐·실리교수와 켄트빌에있는 파몰연구소의 D·F·호롭빈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0개선진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분석한 결과, 당분섭취와 유암간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에따른 유암 발생분포는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있는데 이는 호르몬분비와 식생활습관이 나이에 따라 다르기때문. 대체로 젊은여성들에서는 호르몬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나이든 여성층에서는 식생활의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20개 OECD국가중 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4세그룹의경우 영국이 가장높으며 네덜란드·에이레·덴마크·캐나다順이었다. 이는 설탕소비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분함유도가 높은 식품의 섭취와 유암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호르몬이 인슐린. 인슐린은 혈액속의 포도당 함량이 많아질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다. 여성의 유방은 인슐린 배급에 있어 우선순위가높은 기관이다. 당분은 소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섭취직후 포도당성분은 순환계통으로 흡수된다.

혈액내에 갑자기 포도당이 유입돼 혈액중 포도당함량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신속한 반응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당과잉상태를 빚는다. 당과잉상태가 유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포도당 소비량이 전체당분 소비량의 10%를 차지했으며 에이레 8%, 프랑스는 5%였다. 공교롭게도 포도당소비량이 가장높은 3개국이 유암으로인한 사망률이 가장높은 나라들이다.

경구피임약에 함유된 합성 에스트로겐과 식용식품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시 천연호르몬과 함께 여성의 유암을 촉진시킬지 모른다.

연구에 따르면 양(羊)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암컷은 수정불능,분만곤란,젖분비곤란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에 유사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에 간접적인 영향을 일으킬수 있다는것.

일본여성중 65~75세연령층의 유암사망률은 영국의 14%에 지나지 않으나 35~44세연령층은 영국의 36%를차지하고 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콩과식물인데 일본은 콩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유암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젊은 여성에게 약간의영향을주지도모른다는분석이다. 【外誌】

人體부품시대…「死亡판정」새 論難

腦死냐 心臟死냐

現行法上 규정없으나 心臟死가 通說

뇌의 죽음(腦死)이냐, 심장의 박동정지(心臟死)냐. 최근들어 인체의 장기이식이보편화되면서 사망시기의 판정이 새로운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망판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장기이식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이식학회(회장 朱槿源)는 지난25일 서울대병원 C강당에서「뇌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토론을 벌였다.

「뇌사」라는 생소한 용어가 의학계에 등장한 때는 50년대 마취하의 발달과 함께 인공호흡기가 개발되면서 부터 … 로 측정된다. 뇌의기능이 멈췄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로산소를 공급하면 심장등 각장기는 살아움직이지만 절대로 소생하지는 않는다는 것. 인공호흡기가「뇌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뇌사는 현대의료문명이 가져온 부산물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뇌사」란 한마디로「뇌가 영구적으로 기능을상실하여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말한다. 따라서▲완전한 혼수상태에서 모든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않고▲동공이 확대되어 광선에 대해 반응이 없으며▲자기 스스로는 호흡이 불가능하며▲뇌파검사에서 뇌세포의 기능이 완전정지된 상태가「뇌사」로 진단된다.

그러나「뇌사」만으로 사망의 판정을 내리기에는 어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면이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장이 인체의 중심이라는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적인 의식이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사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漢陽大의대내과 朴漢喆교수는『뇌사이후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고 절망의 나날과 슬픔은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기계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비도덕적인점을들어 뇌사의 판정이 합리적임을 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 특히 뇌사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장기를 공급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것.

실제로 이식수술이 가장 활발한 신장의 경우「뇌사」의판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장이식은 혈연간에도 이루어지고있지만 사체이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때문이다.

79년말까지 세계에서 살아있는 신장부전증환자 5만2천5백15명중 신장이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1만2백87명이고 4만6백45명이 인공신장투석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것. 인공신장투석기로생명을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미국의경우 연간치료비는 22만달러에 이른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여 최소한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신장투석기 사용(1년1백회 투석)에드는 비용만도 9백만원에 달한다.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중남미, 유럽등의 13개국.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李世中변호사는『현행법에는 아직 사망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전제하고『심장박동정지를 사망의 판정으로 삼고 있는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형사법으로는 뇌파가 멎었다하더라도 사망판정이 어려워 유족의 장기적출승낙을 얻어도 법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며 뇌사를 인정한다하더라도 뇌사의 판정과정이문제로남아있다는것이다. 李변호사는『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장기이식에관한법률을마련하여입법적인뒷받침을해주어야한다』고강조했다. 【특집부】

한국일보 (특집판)

세계의 英才교육 어떻게 하고있나

美國

타고난 天才와…

國校서 大學까지 別途의 프로그램

「適性교육」 보편화

【로스앤젤레스支社=朴興津 기자】 레이건미대통령은 금년초 연두교서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문제에 큰비중을두고 「하이텍」(고도공학)과전지과학분야에 교육의 중점을 두자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난12일 정기라디오방송회견에서도 기초지식의 함양과 경쟁을통해 미국의 교육을 본궤도에 진입시킬수있다고 강조하고 『지난20년간 연방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8배나 늘어났지만 SAT(대입학력평가시험)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있다』며 미교육이 심각한 지경에이르렀음을 지적 상기시켰다.

그가 전자과학을 들먹인것은 다분히 일본을겨냥하고한 말이지만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교육수준은 내려갈대로 내려가있다는것이 국민과 교육계의 똑같은 소리다.

미국은 소위 60년대이후 리버럴리즘의 물결을타고 학생편리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그결과는 학생들의실력저하만 가져왔을 뿐이다.

미국에서영재교육(Gifted Program)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지난57년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린 이후(「스푸트니크쇼크」).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과학수준을 얕잡아보던 미국은 소련에게 선제기습타를 얻어맞자 부랴부랴 과학교육, 영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향전환을했다. 그러나 60년대 미전국에 팽배했던 리버럴리즘의 영향으로 중·고·대학할것없이 인문·자연등 교양과목을 비롯, 외국어선택등을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맡기는등 지나친교육자유화의 물결로 전반적인 기초교육수준이 낮아졌다.

미국의 교육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것은 74년이전만해도 영재교육을받는 학생의수가 6명중 1명이었던 것이 요즘에는 20명중 1명으로 떨어진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지능이 뛰어나거나 어떤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키워간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질이 저하된 교육풍토에서 일부나마 똑똑한 학생들을 구제해보자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가주교육구장학관 박종국박사는 풀이했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전국의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있다.

각 주정부에는특수교육과가 있고 이안에 영재프로그램과 지진아프로그램등이 마련돼 있다.

주정부산하 각 교육구는 저마다 특수교육부를 두고 주정부가 정한 교육법의 규정·범위안에서 교육구 자체특성에 맞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현재 미국에는 영재로선정된 학생들이 50여만명이있는것으로 추계된다. 이들은 IQ테스트와 수학시험등을 거쳐 선발되게 된다. 교사와카운슬러가 지능이 뛰어나거나 특수분야에 탁월한 재능을가진 학생을 발견하면 일단 부모와 상의, 지능테스트등을 치르게 하고 이어 학교에 있는 교육심리학자를통해 영재선발위원회에 추천, 여기서최종 결정을 내린다. 영재의기준은 IQ 1백24이상 그리고 수학등 시험에서는 A를 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지도하는 영재교육은 ▲다른 급우들과 함께 공부하되 영재에게만 특수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방법▲학교내에서 월반을 시켜 지도하는 방법▲영재만 따로 반편성하여 지도하는 방법등이있다.

그러나 「인권」「민주」라는 원칙 때문에 소위 특수반편성은 흔치 않은 실정. 미영재교육의 특성중 하나는 특별활동의 강화에있다. 많은 학교에서 영재들의 일반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방송국의 앵커멘·금융계및 비즈니스계 인사와 기자·엔지니어등을 초빙, 학생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영재들 각자가 갖고있는 특수분야의 재능을 재빨리 스스로 파악개발해 나가도록 하고있다. 또 1주 1회 「필드 트립」(Field Trip)을 통해 신문사·방송국·공장등을 견학케 해 자신이 갖고있는 특성을 스스로 포착토록 하기도 한다.

박종국박사는 한국의 현교육제도가 영재교육면에서 볼때 바람직한 것이라고 예를들어 설명한다. 지난해 영국에서실시한 미국과 일본학생의 IQ테스트결과 일본학생이 영국학생보다 10이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박박사는『이같은사실은 동양아동들이 어릴때부터 부모의 강한 기대감과 교육동기에 자극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말하고 『IQ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학설에 입각해 차라리 지나치지 않은 치마바람은 교육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LA의 교포어린이들이 어느 학교의 영재프로그램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한국 어린이들의 우수성은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리처드·램 콜로라도주지사는 콜로라도주 학교신문 편집장들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학생들은 1년에 2백40일, 1주일에 6일, 1일 8시간씩 공부하는데 비해 미국학교는 1년에 1백80일, 1주에 5일 그리고 1일 6시간밖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미국에는 영재들만 따로모아 수용하는 시스팀은 없지만 스탠퍼드등 유명대학에서 부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지도하거나 특수분야에한해 집중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인사들은 한결같이 영재교육에도 부작용이 따를수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日本

高校·大入 완전자유경쟁

東京大등이 엘리트 養成

「名門이 代役」

◇일본을 움직이는 엘리트의 관문인 名門 東京대학교본관. 천재들을 교육하는 별도의 학교는 없으나 東京대학교는 천재들의 대학으로 통한다.

【東京=宋孝彬특파원】 2차대전후 일본에는특수한英才교육기관이 없다. 그러나 명문고등학교와 대학이 수재교육을 담당하고있다.

패전후 일본은 「旧制」고등학교와 帝國대학등 영재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을 전폐하고 6·3·3·4제의 민주교육에 의한 교육의평준화를 꾀했다.

태평양전쟁전에는 東京帝大를 비롯한 대학과 一高·三高등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전국의 수재들을선발하여 월반제도를 도입하는등 영재교육기관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이패전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의 평준화를 기도했다. 물론 고교생들의 월반제도도 없어졌고 대학졸업도 4년동안 1백24학점을 고루 따도록 규정함으로써 단기이수제도는 없어졌다.

고등학교의 졸업식은 졸업장만 건네주는 행사에 불과하게됐으며 우등생에대한 표창장도 주지않는다. 성적이 나쁜 학생에대해열등감을주지않고 공부를 잘하는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 모두가 구김살없이 자라서 사회에 기여할수있도록하자는데 그교육목적이있다.

이와같은 교육의 평준화에 대해 京都大學의 다까기(高木英明) 교수같은 사람들은 『교육의 평준화란 우수한학생을 후퇴시키는 전국민의 우민화교육정책』이라고 반박하고있으나 아직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대개가 반대하고있는 실정이다.

국민학교와 중학교까지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일본은 교육의 양적확대가 크게 눈에띄고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철저한 자유경쟁입학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우수한 학생이 몰려드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이름이 박혀지게 됐다.

「제국대학」이란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대신 東京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이 명문대학의구실을 하고있으며 그중에도 특히 東京대학이 일본을 움직이는 엘리트대학으로 자타가 공인하고있다. 고급관료와 우수한 두뇌 과학자를 배출하는東京대학은 明治維新이래 근대일본의 지배층이 배출된 엘리트양성기관으로 군림했다. 東大에는 10개학부가있으며 그중에도 東大법학부가 일본관계를 지배하는 교육기관으로손꼽힌다.

東京대학 입학생은 매년 3천1백여명에 이르며 그중 법학부는 6백92명이고 경쟁률은 2대1 남짓하다. 전국 5천개 고등학교중에서 1、2등만이 몰리므로 그 경쟁률은 최고라고 할수있다.

학력사회인 일본에서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와야 명문대학에 들어갈수있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출세할수있다는 등식때문에 명문대에 들어가기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하다. 東大신입생의 36%가 재수생이고 개중에는 3修 4修가 50여명씩 끼어든해도 있다.

東京大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학교로는 東大부속고등학교와 히비야(日比谷)및 아자부(麻布)고등학교가 꼽힌다. 이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위해 80%이상이 명문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수업료는 제일 비싼것이 월 10만엔에 이른다.

東大생이 중요부처에 많이 깔려있어 다른대학출신은 기를펴지못하는 실정이다. 역대수상을 보더라도 요시다(吉田茂) 수상을 비롯, 기시(岸信介)이께다(池田勇人) 나까소네(中曽根康弘)등이 모두 東大법학부 출신으로 패전후 15명의 수상가운데 9명이 東大출신이다.

이같이 東大일변도의 관료사회를 뚫고자기위해 미끼(三木) 정권때 「학력독점금지법」(가칭)을 만들어 東大출신이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고급공무원 승진시험에서 東大출신합격자수를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공개경쟁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학교육은·이제 엘리트의 양성소이기보다는 대중교육기관으로서 확산됐으며 東京大등 명문대학만이 수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관의 구실을하고있다. 대학수험생의 대부분은 전공학부를 정한뒤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우선 쉬운데들어가놓고 보자는 경향이많아 補科와 유급생이 많이 나오고있다.

이렇듯 교육연한이 점점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교육단축론」이 제창되고있다. 문부성의 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의 6·3·3·4제도를 5·5·3제도로 단축하는등 교육연한을 2~3년쯤 줄이자는 시안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명사회에서청소년들을20여세이상까지 학교교육에 묶어두는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학교교육은 학문의 방법만을 가르치는데 그치고 기술과학문연구는 평생교육을통해 성취해야 한다는것이 교육단축론자들의 주장이다.

일본의 6·3·3·4제의교육제도는 이제 재검토단계에 접어들었다.

프랑스

少數君臨따른 派閥·관료주의에 「거미줄」制度 부작용

特殊학교가 판 國家

【파리=安炳璨특파원】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번거롭게얽혀있다. 사기문화에 도착하여 거미줄같은 교육제도라하여 그들나름의 강점을발휘하지만 스스로 거미줄에걸려허덕거리는 고뇌의 깊이도 상당하다.

프랑스가 자기네 교육제도에 던지는의문의 하나도 청소년의다양한 재능과 교육평등권을 어떻게 조화해야하는가하는 교육목표의문제이다.

프랑스에도 神童또는 天才라고 부르는 극소수의 지능높은 아동을 따로모아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다.

▮다만 초년아동의 부모, 심리학자, 교육자의 모임인「프랑스초지능아동협회」(1971년설립)가 니스에 있다.

초지능아동의 문제점을 분석한 이협회심리학자 장·샤를·테라시에는 『4백명의 회원이가입한 우리협회는 초지능아동이 학교에서 월반을하는데 따르는 여러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초지능아동은 부모와 교육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이런초지능아동보다 프랑스교육의 관심은 엘리트주의 교육문제에 쏠려있다.

오늘의 프랑스는 특수학교출신들이 「帝國」을 형성하고있다.

프랑스에는 『우리가 곧 국가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리」는 프랑스의 일반대학이 아닌 몇몇특수학교출신을 말한다. 특수학교 출신의 우두머리는 「폴리테크니크·마피아」를 구성하는 파리공과대학(에콜·데크니크) 출신이다.

1974년에 국방성직할로생겨난 3년과정의 이학교는 기술·경제를 전공한 기술관료를 배출하여 프랑스를 지배했다.

81년도 입학정원은 2백56명인데 응시자는 2천22명이었다.

지난 72년부터 여학생입학을 허용하여 현재 59명(학생수 9백68명, 외국인40명)이다. 학생은 예비역장교대우로 졸업후 각자 기관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이 학교출신은 「X」로 통하는데 「X」의 80%가 국립행정학교(ENA)에 들어간다.

1946년 드골이 수상직할로 세운 ENA는 30세미만의 현직공무원을「內部考査」, 대학졸업생은「外部考査」로 입학시키고 있다.

2년반의 교육기간중 이론교육은 8개월뿐이고 나머지는 해외공관등에서 실습을한다.

지스카르전대통령, 시라크파리시장, 아탈리대통령特補, 세이송외상, 조스팽 사회당사무국장등 많은 고관이 이학교출신이다.

이학교출신의 별명은「에나르크」.

「X」나 「에나르크」와함께 프랑스를 주름잡는 것이 이른바 사범학교출신(노르말리앙)이다.

1794년에 설립된 문교성의 4년제 파리고등사범학교(ENS)는 과학자 파스티르, 작가로망·롤랑, 철학자 사르트르, 前세네갈대통령셍고르, 前대통령퐁피두, 사회주의지도자조레등 당대의 인물들을 배출했다.

81년도 입학시험때 인문계는 57명모집에 4백명, 자연계는 44명모집에 7백명이응시했다. 시몬·베이유등 여성지도자를 배출한 파리여자고등사범학교는 1881년에 설립됐고 현재 재학생수는 3백88명이다.

이밖에 음악과 발레의 소수정예를 기르는 파리고등음악원및 고등예술연극학교, 고등중앙학교, 고등광산학교(1783년설립) 고등토목학교(1783년설립)등선택된 특수학교가 많다.

이런학교출신들은 정부기관및 사회조직내에서 계열별의 선후관계, 동창계보를 가지고 완고하게 결탁하기 때문에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는 일부 대학졸업생은 정부기관등에 발붙이기 힘들다.

특수학교계열은 국가기관내부에서 세력다툼도 격심하게 벌인다. 국립행정학교출신은 최고행정재판소나 회계감사원을, 파리공과대학출신은 기술행정요직을, 고등중앙학교출신은 공기관을 차지하며 고광산토목학교출신은 공업성·환경보건성을 요리하고있다. 드골파 퐁피두정권에는 광산학교출신의 전성시였으나 지스카르이후는 파리공대와 국립행정학교사단이 지배권을 쥐고있다.

르·몽드교육매거진이 79년 7월에 조직경영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선호도를 조사한 바로도 파리공과대학이 단연 1위이고 국립행정학교 고등중앙학교 파리중앙학교 고등광산학교 고등토목학교의 순으로 나와있다.

이때문에 프랑스는 특수학교출신의 기술관료주도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는 74개대학에 1백10만의 일반대학생(외국인12%)이 있고 따로 3백6개의 특수직업학교에 10만학생이 있다.

1789년혁명을 전환점으로 교육권을 확대해온 프랑스는 어느덧 엘리트주의의 군림이란 새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달 미테랑의 교육상인 알랭·사바리는 『중학교의민주화를 위해』라는 보고서로 교육개혁의 주사위를 던졌다. 이것은 지나치게 빠른 『학생능력관찰』과 시험에만 의존하는 능력평가의 역기능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술문화의 요구에따른 교육제도의 방향전환을 강조하고있다.

사회당은 또 사립가톨릭중학의 국립화방안, 국립행정학교(ENA) 입학자격의제3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정당이나 노동조합원에 문을 개방하자는 방안을내놓아, 바야흐로 논쟁이 일고있다. 보수파는 사회당개혁안이 『보수진영의 엘리트주의』에 도끼를 휘두르는 짓이라고 맹렬히 반대한다.

길 ◇韓景職◇

마음의 관리

고대의 지혜를 다 모아놓았다는 잠언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여기 지킨다는 뜻은 관리를 의미한다. 같은 책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잠 23:7)하였다. 마음의 생각은 곧 그사람이다. 선한 생각을 가진이는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품은 이는 악한 사람이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우리의 장래를 지배한다. 바른 생각은 고귀한 인격과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고 악하고 추한 생각은 결국은 비열한 인간과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고야 만다. 생각의 올바른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것은 성을 지키기보다 어렵다』한는 옛말이 있다. 마음과 생각을 옳게 관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빛이 있는곳에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방안에 맑은 공기가 들어올때에 더러운 공기는 빠져나간다.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할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와진다. 깨끗하여 진다.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여 진다.

땅끝에서 오다 <42>

金成一 作 / 宋龍 畵

迷惑의 시대 ⑥

을씨년스러운 경찰서의 취조실에서 근은 오래간만에 돌아온 서울의 첫밤을 보내야했다. 집에다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결국도 없었거니와 그만두는 것이 나을것 같았다. 난데없이 수난을 당하는것은 고사하고 밤중에 남의 부인이 혼자 사는 집을 뭣하러 갔었느냐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묻는다면 대답할말이 없을것 같아서였다. 친구의 실종을 알리러 갔었다고 해명하더라도 도대체 밤열한시에 갔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될것같지도 않았다.

경찰의 심문과정에서도 준호는 오히려 형사들에게 그들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하였다. 그들은 시원하게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지않고 단편적으로만 꺼내었는고로 잘 연결해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도대체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에 문영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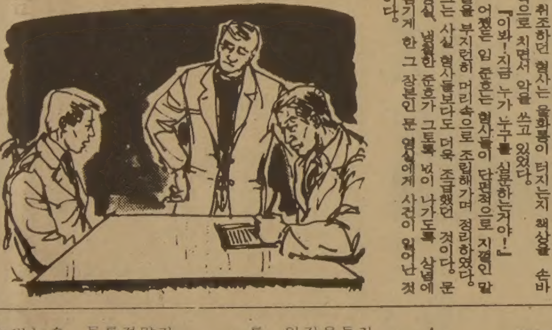
『죽은 사람은 문영실과 어떤 관계입니까?』

『문 영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읍니까?』

취조하던 형사는 울화통이 터지는지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악을 쓰고 있었다.

『이봐! 지금 누가 누구를 심문하는거야!』

어쨌든 입 준호는 형사들이 단편적으로 지껄인 말들을 부지런히 머리속으로 조립해가며 정리하였다. 그는 사실 형사들보다도 더욱 조급했던 것이다. 문영실, 냉철한 준호가 그토록 넋이 나가도록 상념에 잠기게 한 그 장본인 문 영실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형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는 이런것이었다. 문영실이 혼자 자고있던 아파트304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은 이십 칠, 팔세 가량의 남자. 신원은 미상이며 지금 수배중. 피의자 문영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밤 몹시 술에 취해있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할수가 없다는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살해당한 청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은 문 영실 그녀 자신이었다. 아침 열시가 가까와서야 심한 갈증때문에 잠이 깬 그녀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서 응접실쪽으로 나오다가 카페트 위에 넘어져있는 시체를 발견한 것이었다. 카페트에는 피가 흥건히 괴어 있었고, 사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술이덜 깨어다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그녀는 미친사람처럼 마구 112를 돌려 살인사건을 신고했던 것이다.

문 영실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관의 도어는 안으로 잠겨져 있었다. 현관의 도어에서는 오직 죽은 청년의 지문과 문영실의 지문만이 발견되었다.

피살자의 사망추정시간은 밤 열 두시에서부터 한시 사이. 문 영실은 몇시에 귀가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술을 마신것도 첫번째 마신곳 부알리에(Voilier)라는 살롱 이외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든 죽은 청년은 아파트304호에 들어와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도어는 안으로 잠겨 있었었고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준호는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읍니다』

올림픽福券 인기 浦項선 40分줄서

○…올림픽복권의 인기가 대단하다. 浦項시내의 4개복권판매소에는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50~1백명씩 기다리고 있어 복권한장 사려면 20~40분을 기다려야한다.

복권판매소에 의하면 상오에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복권을 배정받은 월요일에 일주일분이 모두 매진된다고 한다.

올림픽복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복권1등 당첨금액이 1억원으로 늘어나서인지 계층이 다양해지고 인기가 폭발적인것이특징이다. 【浦項=[illegible]】

人類의 水生期주장

★英 저술가 모건女史

영국의 저술가 일레인·모건여사는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물고기와 비슷한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 인류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모건여사는 지금까지의 인류학적전통을 부정하면서 인간과 원숭이사이에 차이점이 많은것은 인류가 진화하는과정에서 주로 물에살았던, 이른바『水生期』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모건여사는 최근 자신이저술한『물에 사는 원숭이』라는 책의 판촉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 기자회견을 갖고『나는 내 이론에 확신을 갖고있으며 앞으로 20년내에 틀림없이 인정받게 될것』이라고 장담했다.

모건여사는 인간이 몸에털이 없어지고 직립보행하여언어를갖고 눈물을 흘리며 또 피부밑에 지방을 축적하게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건여사는 水生이론의 요점은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들이 거의 대부분 水生期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 【UPI】

海外토픽

모스크바 날씨異變

★1世紀만에 가장포근

3월한달동안 모스크바의 날씨가 지난1세기동안 유례없었던 가장 따뜻한 기온을 기록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

지난주 모스크바의 기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섭씨2도가높은 섭씨12도를 기록했다고. 【UPI】

예수壽衣 교황청에

★亡命중죽은 前 이탈리아王

36년간의 망명생활끝에 지난18일 제네바에서별세한 前이탈리아왕 움베르토 2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당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소유의 壽衣를 교황청에 기증하도록유언했다고.

『예수의 얼굴』이라하여 가톨릭 신자들이 교단의 가장 신성한 유물중 하나로 취급해온 이 壽衣는 현재 투린성당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소유권은 15세기이후 사보이왕가에 귀속되어왔다.

움베르토2세의 가족대변인은 25일 왕의 유지에따라 壽衣를 교황청에 기증한다고 밝히고 이壽衣가 교황이선포한 『83聖年』을 맞아 좋은선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부언. 【UPI】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다

김석환올림

▫한국 고유의 각종 가구 전문.
▫옥돌가구(자연석을 깎아 조각을 떠서 가구에 박음)
▫각종 동양화 취급

★주문생산 환영, 맞춤전문

기술자 : 고영재—고전가구 전문목공사
김명환—칠기사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地自制실시 國會法개정 다시 높아지는 政治議案 波高

「잠복성爭點」에 年末國會의「애매한 合意」까지 是非로

제1백16회 임시국회는 初盤에 順風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으나 中盤을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波高가 일고있다.

당초 여야간에 「潛伏性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법개정안과 지방자치제실시등 이른바 政治議案이 19일의 民韓黨당무회의에서 對與공세로 표출되기 시작, 11代 국회들어 처음으로 「與野의 聲明戰」이 전개되는등 점차 예각화되어가고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정치議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한치의 융통성」도 없는 「원위치 固守」의 경색된 분위기인만큼 고도의 정치협상에의한 돌파구가 마련되지않는한 타결은물론 의견접근도 어려운 전망이다.

정치議案에 대한 처리是非가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제와서 새삼 문제가 된것은 지난해 정기국회末尾의 3黨총무회간에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두문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결말을 내어보자고 합의했기때문이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의경우, 民韓黨을 비롯한 야당圈이 野性회복의 표적물로 삼았는데반해 집권 民正黨으로서는 개혁의지의 상징물로 내세운 정치쟁점의 대목이다.

◇議案처리는 與黨측의 「改正不必要論」과 野黨측의 「합의대로 改正추진」 주장이 팽팽히 맞선채 11代후반국회에서도 좀처럼 풀기어려운 숙제가된것같다. 사진은 20일저녁 蔡汶植국회의장 초청으로 會同한 3黨대표. 右로부터 柳致松民韓총재, 蔡의장, 陳懿鍾民正대표, 金鍾哲국민당총재. 【鄭在斗기자찍음】

「改革의지」·「野性회복」맞서 讓步 어려운 梗塞 분위기

民韓黨측은 11代국회가 출범한지 1개월이된 81년5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정치입법에대한 改廢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당이 지난해3월, 별도의 개정안을제출했고 議政동우회도 또다른개정안을 마련해놓고있는가운데 野黨의 單一案이 모색되는등 국회법에대한 야당圈의공세는 줄기차게 계속됐다.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개혁입법에대한 개정은 있을수없다는 강경하고도 완강한「改正不可의 입장」으로 始終해왔다.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었던 地自制 실시문제도 표면으로는 야당의 早期論과 여당의 愼重論이 엇갈리는듯 했으나 정치領域의 활성화라는 背面의 이유때문에 원점을 맴도는 상태였다.

이럴듯 여야의 판이한 입장속에 2년 가까이 국회가 열릴때마다 반복 쟁점화 되었던 두 정치議案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 막바지 3黨 총무회담에서 합의점이 마련됐다.

즉 국회법개정안은 83년4월末까지 처리하고 地自制실시문제는 83년6月末까지 결론을내린다는게 합의내용의줄거리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의절차를 비롯해 기본적인 骨格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83년4월까지 국회법小委활동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또한 地自制문제는 83년6月末까지중간결론이나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인 「4月末 처리時限」이나 「중간 결론의 추출」대목을두고 與野가 엇갈린해석을하고 있는데서 是非가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실상民正黨은 「時限」의 뜻을 「검토의 終結」이라는 한정적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반해 야당圈에서는국회법의 개정을 전제한처리라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국회직전 民正黨의 鄭石模 정책위 의장은 「개혁입법의4년내 改正不可論」의 韻을 재차 띄웠고 陳懿鍾대표위원은 국회대표연설을통해 분명히 「개정不必要」라는쐐기를 박았다.

民正黨의 「不可쐐기」는 어떻게보면 11代국회 출범이래의 기본입장인데다 올들어 解禁을 비롯한 경찰관 폭행치사사건등 현안의 당면사와 관련된 야당圈의 공세를 무디게하자는 전술적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民正黨의 정면거부에 야당圈에서는 여야 합의사항에대한 일방적 파기행위이며 국민에대한 다짐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감정적 반발과 함께 지난 19일의 民韓黨당무회의에서는 對與를 향한 집중성토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합의 내용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耳懸鈴鼻懸鈴식의 해석이 나올수 있는 합의사항의 難解度로 미루어 그만큼 합의당시 여야 속사정의 복잡함을 엿볼수 있다.

다시말해 합의란것이 국회법이나 地自制문제에 대한 條文上의 구체적 의견접근이나 실시시기의 논의라는 실무적 차원이 아닌 여야쌍방의 복합적인 정치利害의 産物이라는풀이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 제기자의 입장인 야당으로서는 객관적으로 判讀이 어려운 합의내용을 가지고 마치 戰利品이라도되는냥 과대선전을해온 책임을 면하기는어렵게됐다.

그러나 쌍방에 이해가 엇갈린 상황에서 합의란 「발전적의미」를 담게 마련이며 발전의의미는 改惡이 아닌 改善쪽으로 풀이되는게 일반론이다.

더구나 정치議案이 논의되어온 과정에서의 「進一步한感」을 줬던 개연적상황을 유추해본다면 限定的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문제가 국회 小委활동에서 13차례나 거론이됐다든가 문제점을 補完한다는 명목아래 관계 의원들의 海外의회제도시찰 문제가 거론되었던점등은 모두가 進一步한 개연적 상황이다.

특히 李載瀅 전民正黨대표위원은 지난연초 地自制문제와관련, 『民韓黨이 오는 4月 임시국회에서 地自制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오면공동으로 검토할 용의가있다』 『民正黨은 이미 과거의 경험과 모델등을 토대로 우리의실정에 맞는 地自制 실시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기도했다.

여하간 제5공화국 출범이래 여야의 반복쟁점이었던 정치議案은 이제 「처리 時限」에 쫓기면서 여야 攻防의 새로운 局面을 맞게됐다.

더구나 연초 전당대회이래 제목소리를 찾으려는 야당성회복의 기운에 85년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고보면 정치議案을 둘러싼 여야의 攻防은 지난 2년과는 상이한 양상을 띨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껏 상황에 대한 여야의 기본인식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채 단지 정치議案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차정도가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남은 임시국회의 어느대목에선가 與野간의 是非가 본격적으로 再論될가능성이 없지않다.

【李成俊기자】

◇野圈국회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現行	民韓黨案	국민당案
예산안 심사	豫決委서 專擔	常任委의 豫備심사권 인정	左同
國政調査權발동	본회의 의결	在籍의원 4분의 1 발의	20人이상발의
본회의 개의	하오2시	상오10시	左同
閉會중 위원회개회	본회의의결 의장요구	在籍 3분의 1 이상요구	의장, 위원장, 교섭단체요구
본회의 발언시간	통상 20분 對정부질문 30분 정당대표 40분	통상 對정부 질문 40분 정당대표 60분	통상 對정부 질문 30분 정당대표 60분
常任委발언자및시간	의원수 비율	幹事와 협의	左同
국무위원解任案처리	일정기간내 표결안하면 폐기	同규정 삭제	〃
국회의원직辭職	의장허가	본회의 의결	〃
교섭단체구성定足數	20人이상	15人이상 (議政同友會案)	

核배치·경제성장·공업개발에 乘用車타기까지 反對

反對위한 政黨 西獨의 綠色黨

현존하는 정치질서와 관행을 깨부수고 모든것에 반대하고나선 서독의 綠色黨이 총선을통해 의회에진출한지 3주만에 콜수상에대항하여 최초의 승리를거두었다.

오는 27일부터 실시예정이었던 전국적인 센서스(國勢및 인구조사)를 무기연기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서독 연방최고법원은 적법성이 인정될때까지 센서스를 무기연기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센서스반대를 주장해온 綠色黨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녹색당은 센서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있으며 센서스에서 수집된 국민개인에관한 정보를 정부가 악용할소지가 있다는 이유를들어 이에 반대해왔다.

이에따라 서독정부측은 센서스 연기결정으로 최소한 1억마르크(한화약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의 유럽배치반대, 경제성장반대, 군비증강반대, 공업개발반대, 남녀차별반대, 원자력개발반대등 온통 반대투성이 슬로건을 내건 27명의 녹색당의원들이 말만이 아닌 진짜 반대에 성공한것이다.

정장착용을 거부하고 청바지와 스웨터차림으로 등원한 이들은 개회때부터 의회당국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공해로 인한 酸性비때문에 말라죽은 소나무가지를 들고온 의원, 장발에 수염을 깎지않고 조끼를 입고온 의원등 고삐풀린 야생마같은 이들의행동은 행동이상의 무엇인가를 서독정계에 예고해 왔었다.

의석 배치문제만해도 그렇다.

의회당국자들은 녹색당 의원들의 의석을 의사당맨 왼쪽에 있는 한쪽 귀퉁이로 배정해 놓았다.

이곳은 의사당 TV중계때에 카메라에 잘잡히지도 않는 곳이다.

녹색당 의원들은 의석배치에 항의하여 개회첫날부터 의회농성을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이들은 여당인 기민당 기사당연합과 야당인 사민당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 하는데 성공했다. 녹색당은 골격을 갖추고 정권을노리는 기율있는 政黨이라기보다는 기존질서의 변혁을 주도하겠다는 운동단체 성격이 강하다. 녹색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기상천외한게 많다.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남편의 性행위는 강간이니 이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느니, 식생활에서 고기를 조금만 먹어야 한다느니, 모든문명을 깨부수고 구석기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느니 등의 주장은 원내의석을가진 정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몇몇학자들은 녹색당의 주장과 행동은 정치적의미를 갖기보다는 19세기 낭만주의풍조가 복고풍으로 되살아난 사회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이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반발했던 19세기 낭만주의가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녹색당에의해 되살아났다는 얘기이다.

「센서스反對」첫승리… 청바지에 自轉車登院

19세기浪漫「새바람」… 유럽·日에도 擴散추세

녹색당은 원내전략으로 환경보존과 여성문제및 군축문제를다룰 3개 특별위원회설치를 주장하고있어 여당측을 긴장시키고있다.

아직은 야당인 사민당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념면에서 녹색당과 비슷한 컬러를지닌 사민당파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올경우 서독정계는 일대파란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녹색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것은 원내활동이 아니라 원외시위활동이다.

의회내에서의 입법활동보다는 대규모 反核군중시위와 원내에서 입수한 비밀을 의사당밖에서 폭로해버리는데 주력할것이라는 얘기이다.

의원에게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보청구권을 이용해 입수한 비밀정보와 의원들 사이에 양해사항으로 되어있는 의정 비밀을 밖에서 터뜨려 버린다는것이다.

핵무기 배치장소와 미사일기지를 공개하고 정치자금에 얽힌 흑막과 前나치출신 정객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의원들은 의원직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녹색당의원들은 여차하면 면책조항을 벗어난 법적소추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다.

의원직도 임기를 다채우지 않고 2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의원 세비도 공동기금으로 운용한다. 정부가 제공한 운전사가 달린 리무진 승용차도 거부하고 빵배달용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기로했다.

『리무진 승용차는 불필요한 사치이며 자동차는 공해의 주범이기때문에 공해가 없는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는게 그 이유이다.

벼르고 별러 원내진출에 성공한 녹색당이지만 막상 원내에 의석을 갖게되자 차츰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도 있는것같다.

원내에 의석이 없었을때 이들의 외침은 이상주의적 주장으로 끝날수 있었지만 엄연한 원내정당이되자 현실적인 제약을 무시할수없기 때문일것이다.

일부녹색당원들은 페트라·켈리(34) 여당수가의회진출에 성공한뒤 기성政客행세를하고있으며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페트라·켈리 당수는 쏟아지는 인터뷰요청과 서신에 응하느라 건강이 악화된데다가 당원들의 비난마저 있자 『사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것으로 보도되었다.

또 소련의 反核운동자금이 녹색당에 흘러들어 가고있다는 확인할수없는 루머도 끈질기게 나돌고있다.

일정한 기율이없이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는 일부 당원들과 의원들의 奇行은 당지도부마저 당황하게한 정도이다.

◇텁수룩한 수염에 정장을 거부한綠色黨의원이 서독의회 개회식에 참석하고있다. 그의 책상위에는 서류뭉치 대신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화분이 놓여있다. 【外誌】

그러나 분명한것은 새로운질서와 모든사물에 대한 否定的접근을 주장하는 이들이 구태의연한 서독정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있다는점이다.

서독에서는 자칫 가두민주주의를 주장하기쉬운 녹색당과같은 급진개혁세력을 의회라는 기존체계가수용해줄경우 이는 정치의새로운 活力素가 될수있을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게다가 녹색당의 성공은 서독을 벗어나 점차로 확산되고있다.

영국은 페트라·켈리가참석한가운데 환경보호와 反核을 주장하는 군중시위를 가질예정이다.

또 녹색당의 주장중에는 선진공업국과 개발후진국사이의 격차를 좁혀야한다는 주장이 들어있어 제3세계국가의 공감을 얻게될 소지가많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정식으로 등장한 바있다.

【李炳圭기자】

한국일보詩壇

아침 出勤

成耆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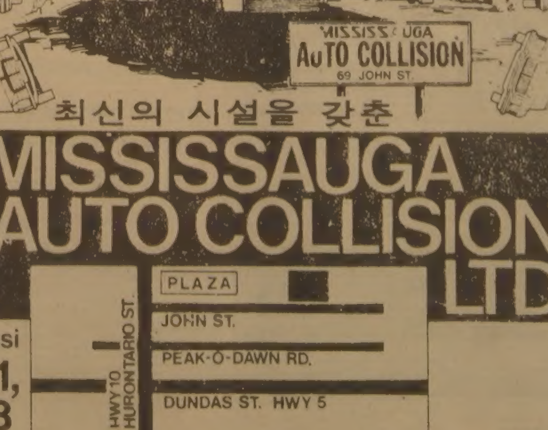
아침 햇살은
산너머 안개를 쫓고
물먹은 꽃망울이
봄 바람을 손짓해 부르는데
오늘도
나는 湖西大學엘 간다.
길가에 선 가로수
소담한 개나리
바람에 흔들리는 현사시는
싱싱한 생선비늘 같은데
山野의 큰 나무는 너의 몸뚱이
환한 꽃들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하늘은 넓기만 하다.
뜨거운 눈망울은 太陽이 되고
두 다리는 땅속에 뿌리되어
너울대는 꽃
그 꽃과 만나려고
오늘도 나는
湖西大學엘 간다.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창헌

DISCOVER '83

■강 사·고석희 목사
(뉴욕연합청년회 지도목사)

■ 때 : '83년 5월20일(금)～23일(일)

■장소: PINE ORCHARD

■연락처: 송병현 ☎ 536-8018

주최·한인기독대학생회(K.I.V.C.F.)

후 원·교역자협회, 장로연합회, 교사연합회

회사돈 12億횡령 잠적 出國직전 空港서 잡혀

—前 한국建業 자금부代理

"證券투기·유흥비로 다썼다"

僞造여권 구입… 브로커조직도 수사

◇구속된 崔秉柱씨

서울시경은 25일 전한국건업(建業) 주식회사자금부대리 崔秉柱씨(30·서울江南區盤浦洞盤浦아파트34동307호)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및 동행사, 여권법위반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崔씨는 지난 81년1월부터 지난해 8월6일사이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12억5천만원의 회사돈을빼내 증권투자와 유흥비로 탕진한뒤 朴順徹씨(30·경기富川市如月洞10의3)명의의 여권을 갖고 밀항으로 해외도피하려다 金浦공항에서붙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崔씨는 회사간부들의 신임이 두터운것을 이용,회사 경리문제를 거의 혼자도맡다시피 하면서▲지급 결재된 서류를 미결처럼 변조하거나▲입금되는 어음을 할인,가로채는 수법으로 회사돈을 빼돌려왔는데 회사거래은행에 자기명의의 통장까지 별도로두어 횡령한 회사돈을 입금시킨뒤 증권투자와 유흥비등으로 탕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崔씨가 해외도피 계획까지 세운점으로 미루어 이돈중 상당액을 은닉시켜두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崔씨는 지난해7월 회사자체감사결과 어음매입자금 5천만원을 횡령한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뒤 잠적했었는데 그후에도 회사에 대금결제를 요구하는업체가 계속늘어나 피해액이 1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崔씨는 지난12일金貞龍씨(45·서울江西區禾谷洞1006)로부터 1천만원을주고 위조여권을 교부받아 출국하려했는데 경찰은 金씨의 배후에 여권브로커조직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崔씨에게 여권을판 金씨는 崔씨가 출국하려던 지난12일 출국해버렸다.

崔씨는「朴順徹」이란이름으로 여권과 비자까지 받아냈는데 朴順徹씨는 경찰의 조사결과 소재가확인되지 않고있다.

朴씨는 또 향토예비군훈련기피사실이 있어 병무청의 출국신고필증을 받을수없자 서울병무청장직인과 담당직원인장2개를 위조, 4월1일자 출국신고필증을 위조, 12일 출국하려다 일련번호를 이상히여긴 金浦공항병무청출입국신고사무소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당초 崔씨를「朴順徹」로 오인, 구속했다가 여권발급대장과의 대조결과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추궁끝에 崔의 신원과 공금횡령사실을 밝혀냈다.

崔씨는 지난70년 大田의 D상고를 졸업, 그해 11월1일 한국건업에 공채로입사, 2년전 대리로 승진했었다.

"校內사태遺憾" 延大에경고狀

문교부장관

문교부는 최근의 교내사태와 관련, 延世大에 경고장을 보냈다.

문교부는 지난23일 張炳圭문교부교육정책실제3조정관을 延世大에보내 安世熙총장에게 문교부장관 명의로된 경고장을 전달했는데 경고장의내용은『최근에 일어난 延世大의 교내사태에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경고한다』『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인 것으로알려졌다.

重機통관書 위조 브로커3명 手配

【釜山】부산시경은 25일 뇌물을받고 공문서원본을 배달과정에서 빼돌린 木浦우체국 집배원 趙형호씨(44·木浦市大盤洞412)를 우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木浦세관장 명의의 엉터리통관확인서를 상습적으로위조해온 중기 브로커 崔한철씨(49)등 3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중인 崔씨등은 국내 건설업계에 비싼값에 팔리고있는 포크레인, 불도저등 각종 중장비들이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관근거서류만 구비하면 아무리 오래된 장비들이라도 기능을 회복시켜 재등록시킬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지난해 7월1일 부산에있는 건설업자 李모씨(59)에게 포크레인 1대에 대한 木浦세관장 명의의 위조통관확인증명서를 60만원에 판것을 비롯, 지난해 연초부터 각종 중장비의 엉터리 수입통관 완료증명서 8장을 만들어 釜山·大邱·全羅道등지의 중기업자들에게 1장에 60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崔씨등은 또 폐품을 이용해 낡은기계를 새로 조립한 중기업자 또는 중장비 정비업체가 엉터리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울주과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시·도에서 통관확인증 발급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발급관청인 木浦세관에 확인조회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질것에 대비, 木浦우체국 집배원 趙씨를 매수,확인조회서를 빼내도록했다.

趙씨는 지난해 7월10일 釜山市가 木浦세관에 발송한 李모씨(59)의 수입통관 확인조회서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崔씨에게 빼돌리는등 그동안 3차례에걸쳐 건당 2만원씩을 받고 공문서를 빼냈다.

崔씨등은 집배원 趙씨로부터 조회확인서를 받으면 이증명서가 틀림없다는 木浦세관장 명의의 위조확인서를 다시 만들어 釜山市등 관할관청에 즉시 우송시켜 왔는데 그동안 경찰에서 밝혀진것만도 부산2건,전북5건, 경남1건등으로 나타났다.【鮎】

18살이면 成年

두살낮춰, 극장·경마장出入도 적용

정부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금지대상자를「만18세미만, 또는 고교생이하의 학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돼온 성년의 기준연령이 종전보다 사실상 2살낮춰지게됐다.

보사부는 25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막기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19조)중「미성년자」를「18세미만의자,또는 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심의에 넘겼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법엔「만20세로 성년이 된다」(4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진학자는 만18세면 이미 대학생인점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할뿐 아니라 단속에도실효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한편 보사부는 이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작업과함께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경마장▲복표(福票)발행및 현상(懸賞)등 사행(射倖)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극장·영화관등의 관계법규도 관련부처와 협의,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18세미만」으로낮추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財閥기업「토지再買入」사건 9명 不拘束기소

대검중앙수사부는 25일 4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재매입 부정사건과 관련,불구속 입건했던 韓一합섬 대표이사 金重源씨(35)를 상업상의 특별배임혐의로, 曉星물산 대표이사趙錫來씨(47), 碧山그룹회장 金仁得씨(67)내쇼날 프라스틱 대표이사林彩洪씨(54)등 4명을 입찰방해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계회사인 慶南개발 진흥이사 李秉友씨(40)를 입찰방해및 뇌물공여 배임증재등의 혐의로,碧山관재부장李必師씨(51)를 입찰방해및 뇌물공여혐의로,내쇼날프라스틱 부산공장장 李相根씨(43)를 입찰방해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장 朴妭守씨(53)와 차장 李賛澄씨(49)등 2명을 뇌물수수및 토개공법위반(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韓一합섬 金重源대표이사는 법인체의 상품매출대금 6억원을 숨진경리이사 金根相씨에게 맡겨놓고 이중 4천여만원을 부산역전의 대지5백14평을 사들이는데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지급, 법인체에 손해를 끼친혐의다.

또 曉星의 趙錫來씨와 李秉友씨등은 지난해 10월께 계열회사직원 章晋瑄씨등을 위장경쟁자로 내세워 서울江南區盤浦洞 임야77평과 부산海雲臺의 대지6백42평등을 계열회사직원 尹重喆씨등의 명의로 부정낙찰받게한 혐의다.

특히 李秉友씨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있는 경남개발직원 郭光讚씨를시켜 토개공 李賛澄씨로부터 예정가격을 미리알아내고 사례및 편의제공명목으로 현금7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있다.

碧山그룹의 金仁得 李必師씨등은 지난해10월께 계열회사직원 金雄秀씨등을 위장경쟁자로 내세워 부산海雲臺임야 3천1백87평등을 金仁得씨의 3남 金熙瑛씨등의 명의로 부정낙찰받게했으며 李必師씨는 토개공 李賛澄씨에게 내정가격누설등의 사례금으로 1백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음식점경영 一家族5명 연탄피워 동반自殺

【大田】25일 상오8시께 충남 大田市 東區 加午洞381 大田순두부집 내실에서 주인 임정규씨(41)와 부인 金영숙씨(37)장남 승현군(11)장녀 희영양(8) 2녀 화영양(7)등 일가족 5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져있는 것을 임씨의 처남金재경씨(3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순두부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 金씨에 따르면 이날 아침상을 차려놓고 내실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전혀없고 문이 안으로 잠겨있어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연탄불이 피워진채 임씨 일가족 5명이 숨져있었다는것.

이들의 시체옆에는 주인 임씨가 처남金씨에게 쓴『할말이 없다. 전세금이 공종돼 있으니 순두부집을 맡아 운영하면서 장사밑천이나 마련하란』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있었다.【鮎】

美고고학자 韓國박물관설립

샌디에고에, 거의 日서구입한國寶級

【로스앤젤레스=鮎】한국문화에 심취한 미국인 고고학자가 자비로 한국박물관을 설립,화제가 되고있다.

캘리포니아州 남단 샌디에이고市에 한국박물관을 설립한 주인공은 레온·신더즈 고고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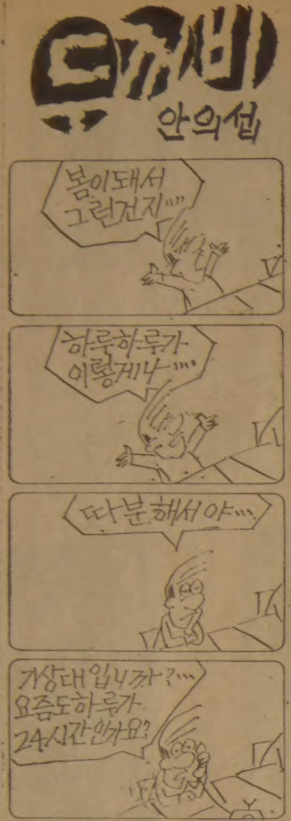
신더즈박사는 지난1960년 유네스코주관의 水原도시개발 훈련센터 책임자로 있을때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지난63년 명예서울시민이 되었고 서울大學과 中央大學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신더즈박사는 한국에있는동안 전국각지의 명승고적지와 박물관등에 관심을 가진 인연으로 콜럼비아大學으로부터 고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더즈박사는 주로 日本으로부터 한국의 국보급문화재를 매입했다고 밝히고 지난1월 개관한 샌디에이고 한국박물관에는 불교화·민속화·도자기등 2천5백만달러상당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고 말했다.

앨버스라는 이름의 이 박물관은 2백50만달러를 투입하여 건립한것인데 신더즈박사는 오는 1984년가을에는『韓國마을』건설을 구상하고있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샌디에이고市에서 한국문화의 찬란한 문화소개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6S 2T9
☎ 923-2819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國校生 3층교실서 추락

窓門닫다… 나무걸린후 떨어져 참변모면

◇白鍾虎군

국민학교 어린이가 3층교실의 유리창을닫다가 높이10m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머리와 허벅지등에 중상을입고 병원에입원,치료중이다.

지난20일 하오 4시30분께 경기光明市 光明국교4년7반교실에서 오후반수업을 마치고 급우10여명과 함께 실내청소를하던 白鍾虎군(11·경기光明市光明4洞)이 교실남쪽의 높이 1m가량되는 뒷유리창을 닫기위해 아래유리창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오른손으로 창틀을 잡은채 왼손으로창문을 밀다가 실족,추락했다.鍾虎군은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으나 추락도중 다행히 높이50㎝가량의 향나무에 걸쳤다가 다시떨어지는바람에 참변을 모면했다.

鍾虎군은 21일상오 漢江성심병원에서 진찰을 받은결과 뇌가 약간 부었을뿐 다른 이상은 없는것으로진단됐으나 지난23일부터 헛구역질을 하고『뒷골이 쑤신다』는등 통증을 호소,사고5일만인 25일하오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李在玉씨(37)에 의하면 鍾虎군은 키가1m50㎝로 학급에서 두번째로 커 평소 창문을여닫는「창문당번」역할을 해왔으며 사고당일에도 창문을 제대로열고 닫지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41·여)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고가난 유리창은 교실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돼 위·아래 각1m씩 2층으로 돼있는데 담임교사는『평소 잘 안닫히는 일은 없었다』면서『鍾虎군이 이달 감기기운으로 현기증을 일으켜 추락한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어린이 3명 溺死

저수지서 스치로폴 타고 놀다

【華城】24일 하오 5시30분께 華城郡 臺安面牢月1里 저수지에서 이동네에사는 金종규군(12·태장국교5년)등 국교생4명이 스치로폴을타고 놀다 스치로폴이 뒤집히는 바람에 金군과 金정환군(12·태장국교5년) 印난영양(10·태장국교3년)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金종인군(12·태장국교6년)은 이곳을 지나가던 이동네 임한심씨(49)에 의해 구조됐다.

이 어린이들은 이날 날씨가 더워지자 마을앞 저수지에서 가로2m 세로1.2m 높이50㎝가량의 스치로폴을 타고 놀다 스치로폴이 옆으로 기울면서 뒤집혀 수심3m의 저수지에 빠져변을 당했다.【鮎】

道峰山등반 대학생 목에자일감겨 숨져

【楊州】24일상오11시께경기楊州郡長興面橋峴里 도봉산 제5봉4번 하이킹코스암벽에서 자일을타고 내려오던 계동성군(20·安養대림공업전문대 전기과1년)이 자일에 목이 감겨 숨졌다.【鮎】

大院君의 중국저고리 公開

淸에 납치됐을때 입었던것

◇興宣大院君이 1882~1885년 淸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있을때 입었던중국 옷 短掛。

興宣 大院君 李昰應이 明成皇后(閔妃)의 세력에 밀려 淸나라 保定府로 납치되어가 있을때 입었던 중국저고리 短掛1점이 처음 발견됐다.

檀國大부설 石宙善 기념민속박물관에서 최근 입수한 이 옷은 大院君이 1882~1885년 사이 겨울에 입었던 옷.

이 短掛는 나비와 나무무늬가 있는 푸른색 우단으로 만들었고 안감은 노란 비단으로 되어있다. 옷길이는 75㎝, 폭은 53㎝, 화장은 72㎝。화장이 짧은것으로 미뤄 大院君의팔이 작은 편이었음을알수있다.

이 短掛의 기증자는 작년말에 작고한 李왕가의후손 李壽吉씨의 유족이다. 李씨는 義親王 李堈公의다섯째 아들. 그는 가보로 이옷을 보관하며 아껴왔으나 작고후에 그의 유족이『박물관에 보관하여 민속자료연구에 도움을 주고, 널리 알려 관심있는 분들께 보이고 싶다』면서 기증을 한 것이다.

3백년된 미이라發見 12代孫이 墓이장하다

肅宗때 水軍절도사

【春川】3백여년전에 매장된것으로추정되는 시신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미이라로 발견됐다. 이 미이라는 1천6백80년 朝鮮朝 肅宗때 京畿수군절도사겸 삼도통어사를 지낸 李行益공의시신으로 李공의 12대후손인 李相珪씨(59·春川市雲橋洞)가 지난23일 春川市孝子洞 언덕위에있는 李공의묘를 이장하기위해 파헤치다가 발견했다. 李씨에따르면부장품인 남자용 도포와 전복등 7점의 의류도 색깔이 약간 바랬을뿐 옛모습 그대로있다는것.

이 미이라는 가로40㎝、세로1백80㎝, 높이45㎝크기에 옻칠을한 외관과 내관안에 들어있었다.【鮎】

산책남녀 철길轢死

【東海】25일새벽1시10분께 강원東海市松亭洞北坪역 남쪽1·1㎞지점 철길에서 산책하던 허승일씨(28·東海市松亭洞5통6반)와 정덕자양(18·松亭洞5통1반)이 江陵발 大邱행 2057호 임시열차(기관사 정용석·49)에치여 숨졌다.【鮎】

「사람들 죽다」 作家·환경보호협委長 朴昌根씨

"公害로 인류絕滅… 空想 아닙니다"

30년후 우리나라 남단의 한섬이 동식물은 물론 인간이 살수없을만큼 공해로 오염된다. 정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이 섬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 섬의 복합오염은 전인류의 문제로 번져 손쓸수도 없게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책임을지고 자살하고 만다. 이공해로 인류는 그동안 인간이 세워온 사랑이나 언어따위의 가치는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한채 절멸(絕滅)돼간다.

이는 환경교육회·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인 朴昌根씨(46·사진)가 요즘 퇴고중인 1천4백장짜리 장편소설「사람들 죽다」의 줄거리다. 서울大문리대에 다닐때「新風土」의 동인이었던 그는 이 소설이 결코 공상과학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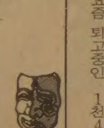
6월5일 환경의날에 맞춰 출판할 예정이지만 그는 이것말고도「환경보전종람」등을 집필하느라 매일 원고지 70~80장을 채워가고 있다. 최근에는 4권으로된「환경공해사전」중 용어편을 출간, 보급에 열을 올리는 참이다.

그가 환경보전에 발벗고 나선것은 월간「다리」誌의 발행인으로 일본에 갔을때 성탄전야 우연히 백화점 쇼윈도의 TV에서 미나마타병소녀의 참상을 본것이 계기가됐다。그때 그는 펑펑 울었다고 한다。군대시절 트럭전복사고로 왼손을 다쳐 지금도 붕대를 감고 다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부터「환경…」은 그의생활의 전부가 됐다.

明洞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무악재에서 매연버스추방운동을하는등『바쁘고 신나게』환경보호활동을 해왔다。그를 이해하는친지들의 농담대로「IQ70이하」라선지 이제는 그만둘수가 없게 돼버렸고 지난연말엔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다。하지만 살림은 해마다 줄어 그는곧 서울의 변두리로 이사를 가야할판이다.

틈이나면『이상태의 환경이나마 기록해두기 위해』카메라를메고 자연을 찾아간다。그는 미나마다병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돌팔매로 한쪽 눈을잃은「라이프」誌의 사진작가 유진·스미드를존경한다。술도 공해라고 매일쐬주를 마셔 없애면서도 정녕 하고싶은말은「사람들 죽지않다」인모양이다.

【任喆淳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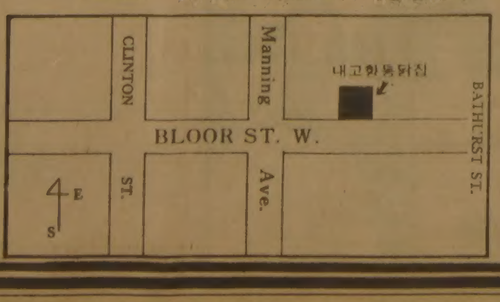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가격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달라졌읍니다.

CHARGEX VISA

ㅁ거리에 따라 수분배달합니다.
ㅁ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내고향메뉴

오뎅백반	$3.50
우동	2.95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통만두	2.95
곰탕	2.95
김초밥	2.95
생선초밥	3.95
비빔밥	2.95
불고기백반	4.95
갈비백반	4.95
떡만두국	3.25
생선찌게백반	3.95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빈대떡	2.50
통닭 Bar B.Q. Whole Chicken	4.95
½닭 Bar B.Q. ½ Chicken	2.95

전통強豪들 초반脫落

대통령盃 고교野球서 드러난 "새바람"

仁川·浦鐵工·世光 두각 「경제적게임 運用」주효

대통령盃대회로 막을연 83년 고교야구가 새로운판도를 보이고있다. 대회 3일째 25일까지 벌어진 9개경기서 우승후보로 꼽히던 지난해 강호들이 잇달아 탈락하는 이변이 일고 있는반면 仁川高、浦鐵工高、世光高등이 무섭게 솟아오르고있다。작년 7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5개팀중 현재 황금사자기의 世光高만이 2회전에 올라있으며、釜山高(대통령盃) 天安北一高(화랑기·전국체전)가 각각 世光高와 仁川高에 패해 초반탈락했으며 群山商(봉황대기·청룡기)은 지역예선서 全州高에、慶北高(대붕기)는 大邱高에져 본선에도 오르지못했다。

또한 전통의 球都 釜山의 3개팀이 모두 첫게임에서 몰락한것도 주목거리。

야구는 쓸모없는 10개의 안타보다 1개의 적시타가 중요한것。世光·仁川·浦鐵工등의 승리는 찬스때마다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적시타가 원동력이 되었다。대회첫날 世光高가 釜山高에 9—6의 안타열세를 보이면서도 6안타를 두차례에 연속3안타로 모아 간단히 4점을얻고 승리한데 이어 浦鐵工高역시 11개의안타중 점수와 무관한것은 단3개로 찬스때마다 연속안타로대량득점을올리는경제적인야구를했다。

浦鐵工은 慶南高보다 안타수에서는 4개가 더많았으나 득점에서는 10—3의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仁川高가 6안타로 강호 北一高의 10안타를 꺾을수 있었던것도 6회초에 터진 연속4안타、4득점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슬라이딩 反擊 8—2로 光州一高의 승리가 거의 굳어진 6회초 반격에서 1死 만루의 찬스를 잡은 東大門商의 3루주자 金大烈(左)이 1루수 땅볼을 틈타 홈에 슬라이딩、1루수의 홈악송구로 3점째를 올렸다。

光州一、東大門商 제쳤다

仁川은 집중4안타로 天安北一 눌러

대통령盃 고교野球

25일서울운동장에서속행된 제17회 대통령盃쟁탈고교야구대회 3일째 2회전에서 仁川高는 에이스 朴相範이 北一高에 10안타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완투하고 6회초 1死1루에서시작된 찬스에서 3번 金亨泰、4번朴相範、5번申奎澈、6번崔斗煥이 연속 4안타를몰아내고 崔마저 내야땅볼에 이어 밀어내기포볼로 홈을 밟아 4점을올려 4—3으로 신승했다。

光州一高는 이날 2회전서 서울의강호 東大門商高를 초반 집중 공략、10—7로 눌렀다。

전날 1회전서 慶北의강호 浦鐵工高는 4번康昌武의 만루홈런등 11안타를작렬시켜 慶南高에 10—3、7회콜드·게임승을 거두는 쾌주를 보였다。

◇제3일전적

인천고	000	004	000	—4
북일고	010	000	002	—3
동대문상	000	022	210	—7
광주일고	230	122	00×	—10

◇제2일전적(24일)

서울고	000	003	000	—3
충암고	000	400	00×	—4
부산상	000	321	00	—6
전주고	311	012	41	—13 〈8회콜드·게임〉
포철공	110	044	0	—10
경남고	030	000	0	—3 〈7회콜드·게임〉

▲홈런=郭東烈(2회·2점·경남) 康昌武(5회·만루·포철공)

朴哲淳·金始眞등 登場 5월부터 새版圖 예상

三美、1주째 單獨선두…투수起用에 무리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가 순위쟁탈의 흥미를 벗어나 일주일째 단독선두를 고수하고 있으며 해태·타이거즈가 홈에서 4연승、단독 2위로 뛰어올랐다。예상을 뒤엎은 판도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프로야구는 전기시즌 중반에 접어들고있다。

전기시즌의 패권 향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낼 5월부터 프로야구판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있다。27일 군복을 벗는 아마야구 최우수투수 金始眞이 三星·라이언즈에서、초반 준비부족으로 난조를보였던 1억원짜리 투수 崔東原이 롯데·라이언즈에서、李源國이 MBC·靑龍에서 각각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기때문이다。지난해 기록적인 24승4패7세이브로 프로원년의 최우수선수로 뽑혔던 OB에이스 朴哲淳도 허리고장을 무릅쓰고 고전하고있는 팀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 최근 개인연습을 시작、출장준비에 나섰다。

지난주 제대를앞두고 마지막 휴가를얻어 三星팀에 합류한 金始眞은『혼자서 프로데뷔를 위해 쉬지않고 연습했다。제대하자마자 三星마운드에 설 작정이다。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자신만만했다。82년 실업야구에서의 기록은 17게임출장 8승、78회자책 16점、방어율 1.85。

초반 2게임에 등판、6회동안 12안타(홈런 2개) 5자책점으로 1패를 기록한 崔東原、8·6회동안 12안타 4자책점으로 1패를 기록한 李源國은 팀의양해를얻어 부족한 연습을 보충、재기를 벼르고 있다。특히 17년만에 고국에 돌아온 李源國은『기후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반드시 팬들에게 나의 실력을보여 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선두를 달리고있는 三美는 지난해의 굴욕을 씻기위해 13게임중 에이스 張明夫를 7게임、任昊均을 6게임에서 출장시켜 투수기용에서 다소 무리하고 있는듯한 느낌이다。張明夫는 58회로 최다이닝을、任昊均은 42회로 張浩淵에 이어 3번째 많은 이닝을던져 三美는 장기레이스의 승부를 결정하는 투수기용에서 오버페이스를 보이고있다。

◇24일전적

◆대구

삼미	000	000	000	—0
삼성	013	000	00×	—4

▲홈런=李萬洙(2회) 朴承昊(3회 3점이상 삼성)

◆부산

OB	102	000	000	—3
롯데	003	110	00×	—5

▲홈런=尹東均(1회·OB) 金容哲(4회 롯데)

◆광주

MBC	000	000	030	—3
해태	010	041	10×	—7

▲홈런=金城漢(2회) 金戊宗(7회·이상해태)

◇홈런 5걸

①金用熙	(롯데)	4
①金鎭雨	(삼미)	4
③李萬洙	(삼성)	3
③朴庸成	(롯데)	3
③金容哲	(〃)	3
③金宇烈	(OB)	3

◇타점 10걸

①朴庸成	(롯데)	15
②金奉淵	(해태)	12
③張孝祚	(삼성)	11
③朴承昊	(〃)	11
③李海昌	(MBC)	11
⑥金宇烈	(OB)	10
⑥金鎭雨	(삼미)	10
⑧李萬洙	(삼성)	9
⑧李鍾道	(MBC)	9
⑧金在博	(〃)	9

◇多勝 투수

		승	패
張明夫	(삼미)	4	2
千昌浩	(롯데)	3	1
任昊均	(삼미)	3	1
李吉煥	(MBC)	3	2
張浩淵	(OB)	3	3

◇도루 5걸

①李海昌	(MBC)	8
②金一權	(해태)	6
③金宇烈	(OB)	4
③金在相	(롯데)	4
⑧金仁植	(MBC)	4

◇타격 10걸

		타수	안타	타율
①金城漢	(해태)	46	18	.391
②徐定煥	(〃)	42	16	.380
③金在博	(MBC)	49	18	.367
④金一權	(해태)	45	16	.355
⑤金在相	(롯데)	45	15	.333
⑤金漢根	(삼성)	54	18	.333
⑦朴庸成	(롯데)	49	16	.327
⑧金鍾模	(해태)	43	14	.326
⑨張孝祚	(삼성)	50	16	.320
⑩金容哲	(롯데)	39	12	.308

◇중간 순위〈24일현재〉

팀	승	무	패
①삼미	8	0	5
②해태	6	1	4
③OB	8	0	7
③롯데	6	1	7
⑤MBC	7	0	9
⑤삼성	5	1	8

記錄도 코스도 "짜증"

瑞典페르손 1위… 2시간16분1초

83서울國際마라톤

◇2시간16분 1초로 우승을 차지한 메르손。

◇여자부 1위 마그다·일란즈。기록은 2시간40분55초。

◇2시간18분20초로 5위, 한국선수로 가장 먼저 골인한 金梁坤。

83서울국제마라톤은 기대에 미치지못한 평범한대회로 끝났다。

24일 여의도 광장을 출발、강변도로를 도는 순환코스에서 7천1백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이날 레이스서 스웨덴의 도미·페르손이 2시간16분1초로 우승、작년 濠洲의 레·위티가 세운 2시간14분33초에 뒤지는 기록으로 우승했다。한국 선수로는 印度아시안게임 金메달리스트인 金梁坤이 2시간18분20초로 5위를 차지、2시간16분15초의 한국기록을 경신하는데 실패했다。

예상을 뒤엎고 멕시코의 카를로스·빅토리노가 2시간16분42초로 2위를 차지했고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뉴질랜드의 폴·벨린는 2시간17분52초로 4위에 머물렀다。

한편 여자부서는 벨기에의 엄마선수 마그다·일란즈(33)가 2시간40분55초로 우승、작년 대회기록 2시간43분12초를 2분17초 단축했으며 한국선수로는 崔敎子(산업기지)가 2시간46분13초로 3위에 머물렀다。

30㎞ 지점。선두 그룹을달린 선수는 한국의 金梁坤을 포함해 9명。이들가운데 작년대회우승자 로리·위티가 복통을일으켜 쳐지고 페르손、카를로스、金梁坤、벨린저、메게르사、룰루(이디오피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32㎞지점을 지나면서 페르손과 카를로스가 스퍼트、金梁坤、벨린저、룰루가 쳐졌으며 39㎞ 지점까지 페르손과 카를로스가 각축끝에 페르손이 우승했다。

◇기록

▲남자=①토미·페르손(스웨덴) 2시간 16분1초②카를로스·빅토리노(멕시코) 2시간16분42초③메게르사·룰루(에디오피아) 2시간17분19초④폴·벨린져(뉴질랜드) 2시간17분52초⑤金梁坤(한국) 2시간18분20초⑥안토니오·실베이라(브라질) 2시간19분39초

▲여자=①마그다·일란즈(벨기에) 2시간 40분55초②재니스·에를(미국) 2시간43분43초③崔敎子(한국) 2시간46분13초

한국新 9·대회新 百51

전국水泳 푸짐한 收穫

제38회 전국수영대회가 한국신기록 9、대회신기록 1백51개를 쏟아내고 24일 잠실실내수영장에서 막을 내렸다。

이 시즌첫대회에서는 기록이 저조한것이 상례인데 신기록러시로 수영계는 활기를 띠고있다。

그러나 한국신기록이 모두 남자부에서 수립되어 崔允庭·允喜자매의 미국행이후 여자부문이 다소 침체되는듯한 아쉬움을 남겼다。

24일 남고계영 8백m에서 2백m자유형에나선 崔善鎔(춘천기공)은 2분01초91로 역영、9년만에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했으며 高明洙·安承昊·柳德淳과함께 계영8백m팀도 8분28초80으로 한국신기록(종전8분32초71)을세웠다。

方駿榮(경기고)은 남고 접영2백㎝서 2분06초52를 마크、자신의 한국기록(2분06초82)을 0·3초 단축、千仁泰(한체대)와함께 한국신기록을 2개씩 수립했다。

◇최종일한국신

▲남고접영2백m=方駿榮(京畿高) 2분06초52(종전2분06초82) ▲남고계영8백m=春川機工 8분28초80(종전8분32초71) ▲남고계영8백m중자유형2백m=崔善鎔(춘천기공) 2분01조97

大邱商高 첫優勝차지

春季럭비리그

大邱商高가 전국춘계럭비리그서 첫우승했다。

大邱商은 24일 오류동럭비구장서 막을내린 대회고등부결승전에서 培材高를 25—0으로 완파、우승을 차지했다。

대학부 결승 延高戰서는 두팀이 13—13으로비겨 공동우승했다。

◇李源京 체육부장관이 尹德夏선수에게 상을 주고있다。

伊게르비優勝

로마마라톤대회 2시간15분11초

【로마·마드리드AP·UPI=聯合】 이탈리아의 지우세페·게르비는 24일 제2회 로마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5분11초로 우승했다。

이날 여자마라톤부문에서는 이탈리아의 알바·밀라나양이 2시간32분57초로 1위를 차지했다。

體育賞 시상식

제21회대한민국체육상시상식이 25일 하오3시 외환은행강당에서 李源京체육부장관、鄭周永대한체육회장、체육인수상자가족·친지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李源京장관은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등 4개분야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경기상제외 각2백만원)、순금배지등을 수여한후 『더욱 분발해달란』고 당부했다。

崔允喜에대한 상은 崔양을 미국에서 수영유학중인 崔지도해왔던 劉雲議코치(상명여중고교사)가 대리로 받았다。

◇수상자

◆경기상▲崔允喜▲尹德夏◆연구상▲金昌圭(국민대교수)▲강원대학교부설체력연구소◆지도상▲劉雲議◆공로상▲金鍾烈▲林光延

高麗大 패권

봄철大學축구

高麗大가 83년춘계대학축구연맹전서 패권을 차지했다。

高大는 24일 大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최종일 결승전서 후반 24분 FW 咸鉉起가 CF 曺敏國의 도움을 받아 결승골을 터뜨려 東亞大를 1—0으로 제압、지난 77년이후 6년만에 통산6번째의 우승을 기록했다。

◇결승전

고려대 1(1—0 0—0)0 동아대

오늘부터 決勝토너

大學배구연맹전

◇예선최종일전적

▲남대A조

인하대 3—0 마산대

경상대 3—0 청주대

▲동순위=①인하 3승1패②경상3승1패(이상세트득실차)③서울2승2패④청주2승2패(이상세트득실차)⑤마산4패

▲동B조

경기대 3—0 충남대

성균관대 3—0 조선대

▲동순위=①경기4승②성균관3승1패③서강2승2패④충남1승3패⑤조선4패。

張吉山 <172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5)

『드디어 사람들을 벌하였는가?』

『우리는 용의 못에서 물로 가야 했은 세일세。동남동녀(童男童女)

옥여가 말했다。

외 부부가 되기로 하였지。나는 이제 동녀인 원향과 연을 맺으면서 미륵으로 환생하려네。건도(乾道)에서 곤도(坤道)로 가는 새세상인 셈이지。보살을 거치지 않고는 어미를 통하지 않고는 태극(太極)을 통하지 않고는 조화의 개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게야。원향은 당군성조를 품으로 받아 수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쳤던 게야』

『자넨 이미 복가를 떠났군』

『아닐세。내 한아비의 혼백을 가지고 미륵에게로 나갈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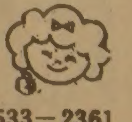
옥여는 그렇게 말하고있는 여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여환은 계속해서 말하였다。

『올해가 정묘(丁卯)년이고 내년이 무진(戊辰)년일세。세상에서는 무진년에 양반은 상사람이 되고 천민은 양반이 된다고 유언(流言)이 낭자하다네。일찍기 단군께서 아사달에 무진입국(戊辰立國)하지 않으셨나。우리는 명년에 반드시 거사를 일으켜야 하네』

옥여가 말하였다。

『무슨 해가 되었든 거사는 해야지。자네가 소식만 주면 우리는 사방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 산문을 박차고 나가게될 걸세』

구월산 인근 사읍인 은율 송화 문화 안악등지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사람들이 올라와 굿준비를 거들었고 오후가 되자 오계손이 신천 재령 사람들을 데리고 떼지어 몰려들었다。사선골은 구월산의 가장 궁핵한 골짜기요 때가 초겨울이라 관의 기찰은 없는 눈치였다。설령 있다하여도 해서의 무계가 모여서 뒤놓은 맞이굿을 한다는데야 별 까탈이 있을 것같지는 않았다。해서 무계의 총대격인 오계손인지라 먼저 와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밖으로 나와 인사하였다。남자들이 쓰기로 한 원향이네 열집초가의 안방에는 각 지역의 나이많은 박수들과 스님들이 있었고 건넌방에는 젊은 화랭이들이나 거사들이 모여있었다。그들은 반 이상이 무부(巫夫)였다。저녁참이되어 평산 신계 서흥 봉산 사람들이 몰려왔고 봉산 사람들 틈에는 강말록이도끼어 있었다。아마도 김기가 이쪽의 되어가는 사정을보려고 보낸듯 하였다。저녁을 먹고나서 날이 저문뒤에야 강령 배천 연안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황해도와 전성달은 전의 경험도 있고하여 동네 어구의 길 초입에다 화토불을 크게피워서、밤에 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두었다。강령 패거리들이란 모두가 사선골서 쫓겨났던 구월산 난민들이었고 배천 연안 장연등 감영이 있는 해주 근처 사람들은 오계손이 예전에 교방 밥을 먹으며 해금으로 날리던 시절에 사귀었던 악사 잡이들이었다。사선골 살던 강령 사람들이 들어서자 원향이는 마주 달려나가 서로 손을 맞잡고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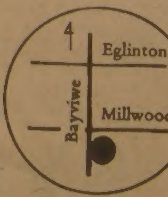


533—2361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라메 관광.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649A BLOOR ST. W. TOR. ONT.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리셉셔니스트 구함.
영문편지와 영어회화에 능통한자.
전화 : 961—7100. 박종수태권도장. Mr. 박 or 모니카.

24세 미만 가게에서 일할분 구함.
유경험자 환영, 남녀 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2 Bedroom 아파트와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
메니져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입주하셔서 아이들 봐주실분 구함.
전화 : 741—9443 Mr. 박
(7시이후 연락요망)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실 리셉셔니스트구함.
영어, 국어를 잘 하시고 영문타이핑을 할수 있는 분.
전화 : 961—2417. Mrs. 최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438—0921 Mrs.유(오후3시이후 전화요망)

책임있는 가게 홀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B)438—6440, R)284—8862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월~금)
55 University Ave. Mrs. 한. 전화 : 368—7662(B)

입주하셔서 남자아여 둘(세살, 일곱살) 돌바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Victoria Pk×Eglington. E.
전화 : 752—1467(낮 12시이후)

일본요리사, 웨이트레스 급구.
Nam Kang Restaurant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주 7일 일할분.
1370 Queen St. E. 곽 내방바람.

살림 돌봐주실 분 구함.
입주나 출퇴근.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6—0787. Mrs. 손.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파 Area.
전화 : 762—6578.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여 권 분 실

정일원(Jung Il—Won)
1128644(여권 No.) 1948년 11월20일 방문여권
4월15일 3PM Eglinton Laird지역분실. 전화: 421—1089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매 매

Flower & Plant Shop 급매
서쪽끝 좋은장소. 리즌어블 PRICE
전화 : 762—2182 오후7시이후 270—7066 Mr. Mester

빵가게(Bakery) 매매. 프라자내 있음.
아스킹 $189,000(도구포함). 리스 5년.
Dufferin & Steeles. 전화 : 745—7551(Susan)

GIFT STORE(선물가게) 매매. 큰 Mall안에 있음. 리스 1992년까지 + 10년옵션가능.
전화 : 633—7479.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쎄미·디타취 벽돌집매매(Montrose & Bloor St.W.)
코리아타운근처. 3Bed Room. 이층집. 완전수리. Parking Lot있음
Asking $99,000. B)596—8681. R)465—1753 Mrs. Chao

Convenience Store 매매. 영 & HWY 7.
새프라자내. 아스킹 $39,000 + 스탁.
리스 5년 + 5년. 전화 : 492—9031(Mr. Tam)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가게달린 집건물을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Sacrificed Pric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집과 가게전물을 함께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6,000불. 리스5년($650/M) +5년($780/M). 현재 월 Rent $580. Plaza안에 있음.
지역. Hamilton 전화 : 1—528—3986 Mr.리 1—389—7755 Mr.차

햄버거숍 다운타운 주 $5,000
8개월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568 Yonge St. 전화 : B)921—2941 R)677—3537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그로서리가게 매매. 해밀톤시내
건물 포함.
전화 : 1—523—5885

배더스트 & 윌슨 지역 HOUSE 매매 (새한장로교회 근처)
Asking Price: $156,900 4 Bed Rm. 2층집
Rose Hersh Ltd. 전화: 633—7777 Mrs. Jacobaso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오픈한지 1주일된 Store 매매.
아스킹$19,500. 오샤와지역.
전화 : 1—623—4557.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Divid

햄버거숍. 다운타운(568 Yonge St.) 주매상: $5,000
8개월만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전화: (B)921—2941, (R)677—353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전화 : 844—1583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비데오 핀볼 아케이드 매매
짧은 시간, 좋은 수입, 옥빌지역
전화 : 842—619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렌트—피커링 5에이커 땅(401로부터 3분). 3 Bed Rm.과 (20×50) 창고. 가내공업과 건축업자에 적합. 전화 : 292—3709 Mr. or Mrs.윤(6시 이후)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강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3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퀸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
전화: 532—7094(B)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현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